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28 1983년 1월 1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January 12,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JAN 12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9일하오 웨스트우드 아레나에서 연습을 끝낸 와일드캣츠팀. 왼쪽부터 이호석단장, 원성필·고유진·고창민·도날드리, 이승엽, 이피터, 프랭크김, 스티브홍, 제임스박, 론·라인스 코치, 곽선영(윗줄). 조셉김, 피터김, 대니엘리, 조셉박, 레이몬드홍(아래줄). —촬영 최귀암—

교포어린이 하키팀 와일드·캣츠

출정 완료

한국 동계체전서 제패 노려

"뛰어 뛰어!(Move, Move!)" 하는 론·라인스코취의 호령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꼬마하키선수들. 하키의 나라 캐나다에서 본고장하키를 익히는 교포소년들이다.

오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동계체전을 앞두고 총연습을 마무리지은 와일드캣츠팀은 이제 또다시 고국을 찾는다는 마음에 들떠있다.

선수16명, 임원10명으로 확정돼 본국 전국체전 아이스하키경기 중등부에 출전하는 [illegible] 다동포팀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3번째팀이고, 중등부대표로는 2번째팀이다.

이번에도 예년처럼 우승에 자신있느냐는 질문에 고성호고문은 "팀연습을 제대로 못했지만 별 이변이 없는한 우승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일저녁 Hwy 27의 웨스트우드아레나에 모인 꼬마선수들은 고국을 방문, 캐나다하키를 보여준다는 설레임에 고된 훈련에도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호석단장은 "선수들이 각팀에 소속되어 시즌중임으로 단체훈련의 기회가 적었으며 선수들의 평균나이도 한국의 중학교1학년(Grade 7)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으나 작년에도 이팀을 맡았던 라인스 코치는 "팀의 전체적 실력은 작년보다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선수중 작년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7명이다. 이제 선수들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 내년쯤에는 다시 고등부선수에 출전할 수도 있고 3~4년후에는 선수선발대회도 개최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이단장은 말했다.

5~6년전부터 일기시작한 교포2세들의 하키붐에 따른 하키인구저변확대에 따라 [illegible] 교포소년하키선수도 이제 100명을 넘어섰다. 오는 88년 캘가리 동계올림픽에는 아마 교포선수들이 한국팀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오는 21일 KAL기편(뉴욕경유)으로 장도에 오르는 와일드캣츠는 15일 하오7시에 결단식(한인회관: 20 Mobile Dr.)을 갖는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명단과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단장: 이호석
◉총감독: 원장호
◉코치: 론·라인스
◉고문: 고성호
◉선수: 피터김(골리), 원성필(부주장)·고창민·스티브홍·조셉박(이상 수비), 이승엽(주장)·고유진·도날드리·피터리·프랭크김·제임스박·곽선영(부주장)·조셉김·다니엘리·레이몬드홍(이상 공격), 앤디오.

오늘의 예금금리(1/5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		8.75%
90일	10.5%		9.25%
180일	10.5%	10.25%	9.25%
365일	10.5%	10.25%	9.2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외환은행 순익 5만2천달러

영업 1년만의 업적 …"3년내 흑자는 드문일"

81년 10월에 설립, 82년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최초의 한국계 은행인 캐나다 한국외환은행(은행장 최승나)이 영업 1년여만에 5만달러이상의 흑자를 냈다.

외환은행이 1월4일 글로브·엔드·메일등 토론토 신문지상을 통해 밝힌 82년 10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및 손익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납부전 순이익은 23만4천달러이며, 파세후 당기 순이익은 $52,000달러였다.

11일 최승나외환은행장은 신설금융기관의 경우, 대개 첫 3년간은 적자를 내는것이 상례인데 첫해부터 이같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교민의 적극적인 호응, (2)각기관및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 (3)교민경제기반의 급속한 신장, 특히 Retail Store를 중심으로 한 교민기업의 활발한 확대성장, (4)캐나다의 다른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비하여 유리하고 신축성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5)국제금융업무의 활발한 신장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교민을 상대로 하는 블루어지점(지점장 김남수)은 지난 5월28일이후 현재까지 적자를 면치못해 본점의 국제업무에서 나는 이익으로 지점의 적자를 커버했다.

외환은행측은 다른 캐나다은행보다 예금금리는 높고 대출금리는 낮게 책정, 고객의 입장에 유리하게 하기때문에 소매업에서는 아직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행장은 캐나다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기불황이 지속되었고, 특히 캐나다정부의 에너지 산업국유화 정책에 따른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금융수요가 크게 감퇴되었으며, 캐나다 은행상의 각종 제약및 차별대우등으로 영업환경이 극도로 불리했음에도 불구 첫해에 이같은 흑자를 내게 된 데 대해 교민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같은 조건이면 한국계은행을 이용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민사회의 발전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단합된 동족애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행장은 지금까지 10개 무역업등 교민이 이용한 총5백여건 대부중에서 지금까지 한건도 상환에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1)교민들이 한국계은행에 대한 신용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고, 2)교민들의 업종이 위험부담이 많은 업체가 아니며, 3)전반적인 토론토 교민사회의 분위기가 신용(CREDIT)의 중요함을 인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민업체들의 대부액수는 평균 2만~5만달러정도.

현재 외환은행의 총직원은 22명, 이중 17명이 현지채용이다. 최행장은 은행경영의 3대원칙인 공익성, 수익성, 안정성중 무엇보다 공익성을 앞세워 교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최대목표로 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발전의 이면에는 경영합리화 즉 경비절감과 인력관리에 힘썼던 것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보며 이런 의미에서 개업이후 지금까지 계속 밤10시까지 야근해온 직원들에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도 말했다.

←캐나다외환은행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및 손익(1982.10.31. 현재)

(단위: 천 캐나다 달러)

1. 자 산	
현금및 은행예치금	$12,851
유가증권	$396
대출금	$26,245
고정자산	$793
기타자산	$634
총자산	$40,819
2. 부 채	
예수금	$34,567
기타부채	$1,072
자본금및 충당금	5,180(자본금: $5,000)
총부채	$40,819
3. 손 익	
파세전순익	$234
당기순익	$52

전·나까소네 1차회담

한일 협력증진 원칙합의

(서울 11일=연합)전두환대통령도 11일 하오 3일간의 한국공식방문을 위해 서울에 도착한 나까소네·야스히로 일본수상과 1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간의 협력증진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약40분간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평가한 뒤, 한반도와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일·미 세 나라는 3각 안보협력체제를 보다 확고히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대통령은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안에 일본의 지지,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일본정부로부터의 기술도입및 대일무역 적자의 시정등을 촉구했다.

이번 회담은 1965년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최초의 공식 정상회담이다.

나까소네수상은 또한 한국과의 협력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대통령의 평화통일안에의 전폭 지지를 약속했다.

청와대대변인은 나까소네 방한의 최대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40억달러 차관문제는 12일 있을 제2차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오 서울에 도착한 나까소네수상은 공항에서 김상협국무총리의 영접을 받았으며, 정상회담에 이어 정태혁국회의장, 김총리와도 요담했다.

11일 저녁 청와대에서 있은 만찬회에서는 180여명의 국내인사및 외교관들이 참석했다.

미국산 비데오게임 수입규제

(오타와)연방정부는 미국산 비데오게임테이프를 수입규제 품목으로 정했으며, 이에따라 모든 성인용 비데오게임테이프는 검사를 받기위해 세관대신 오타와로 보내진다.

"때려라, 먹어라(Beat'em and Eat'em)"라는 미국산 성인용테잎이 10일 연방정부 세무심사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社 告

제2회 스키강습회

가족과 함께 스키를 즐깁시다

"스키를 하시면 겨울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라고들 말하지요.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일보사와 스키협회는 공동으로 작년에 이어 제2회 다운힐·스키(알파인·스키) 강습회를 가집니다. 스키강습겸 가족관광을 겸한 이 강습회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때 : 83년 1월28일(금)출발, 30일저녁 귀가(2박3일)
◆ 곳 : 몽·트랑브랑(Mont Tremblant)
(몬트리얼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회비 : 1인당 $219.00/14세미만 아동 $179.00
(왕복 대절버스편, 2박 호텔료, 아침·저녁 총 4회 식사, 환영파티, 스키·리프트 사용료, 안내원 동승, 스키지도 포함)

◆4인 1실 사용 원칙.
◆스키 렌트비는 별도.
◆선착순 40명
◆신청처: 한국일보사(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스키협회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교회음악봉사자들을 위한

VOICE WORKSHOP '83

옥인걸교수

◆약 력
◉ 미국「보스턴」의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으로부터 연주학위(1964년)와 음악석사학위를 받음(1966년).
◉ 1965년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inging이 주최한 Singer of the Year Competition for New England에서 1등 입상.
◉ 1968년「제네바」국제연주가 콩쿠르에 입상.
◉ 1969년「뉴욕」의 Concert Artist Guild Audition이 주최한 콩쿠르에서 1등 입상을 하여 동협회 주최로「카네기 리사이틀」홀에서「뉴욕」데뷔공연을 가짐.
◉ 현재「로월」음대 성악파장겸 오페라 파장이며, 1966년부터 전 미국 성악교수협회 이사및 동협회 콩쿠르의 심사위원직을 맡고있음. 미국 저명인사록 "Who's who in the East"(제16판)에 저명음악가로 추천, 기록됨.

금번 저희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옥인걸교수를 초청하여 Voice Workshop(발성강의)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성가대봉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차례대로 배울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년 2회씩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아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 Lesson도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정의 참가비 있음)

시 일 : 1983년1월21일(금)~22일(토) 저녁7시~10시(6시간)
장 소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7 GRETNA AVE. TORONTO
연락처 : 박원조(278-4694) 백효중(274-8503)

빌라델비아장로교회주최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에 이부현씨

"내가 회장이 되는 줄 알았으면 양복이라도 제대로 입을것을…."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부현씨(51세)의 신임인사 첫마디는 회원들을 폭소로 몰아넣었다.

은행, 협회에서부터 식당, 상점등 블루어 스트릿60여개의 한인 경영주들이 모여 단체를 이룬 코리아타운번영회 장순채회장의 뒤를 이어

이부현씨가 7일밤 번영회총회에서 제3대 코리아타운번영회장에 당선됐다.

한국관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총회원의 과반수가 넘는 32명이 모였다.

82년도 회장단(변의섭부회장, 유지원총무)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은 회원들은 접대비의 과다지출등을 지적하고 통과시켰다.

이어 83년도 회장선출에 들어가 함병섭전회장의 제의로 5명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에게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는 안이 받아들여졌다.

어느회원이 "단독후보되면 또 인준소리가 나오니 2명이상의 후보를 내자"고 건의, 박추삼(태권도장), 이부현(상점경영), 두 후보가 추천됐다.

22:10으로 회장에 당선된 이회장은 곧바로 차점을 얻은 박후보를 부회장으로 지명했다. 이회장은 2월초 열리는 임시총회에 83년도예산안 사업계획등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신년도 블루어번영회 박주삼부회장(좌), 이부현회장.

자동차 판매 저조 62년이후 최하수준

지난해 캐나다에서의 GM, 크라이슬러, 포드, 아메리칸·모터스등 북미산 승용차의 판매실적은 1962년이후 최하의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중에서 캐나다GM사가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한번 사면 보다 오랜 기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새차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불경기로 인한 수입감소와 유가인상으로 인해 연료절약형 소형모델을 선택하는 비율이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10명의 새차 구입자중 7명이 소형차를 선택했는데 이는 10년전의 4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된 숫자이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전통적으로 대형승용차 판매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던 GM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북미산 승용차의 총판매 대수는 81년에 비해 33% 하락한 499,844대였으며, 트럭판매대수는 33% 감소한 159,571대였다. 이중 GM승용차판매대수는 32% 하락한 250,238대였으며, 트럭은 34% 하락한 76,991대였다.

포드자동차는 지난 한해동안 18% 하락한 112,580대가 팔렸으나 12월에는 93%가 증가, 11,184대가 판매되었다.

또한 크라이슬러도 82년 1년동안 5% 하락한 110,129대가 팔렸으나 12월에는 41%가 증가한 9,958대가 팔렸다.

구독은…
533 2361

장명부 투수 협상 삼미에 1억원요구

(서울 11일=연합)일본프로야구 히로시마·카프스에서 활약하던 재일동포 장명부투수가 한국프로야구 삼미·슈패스타스와 입단협상차 내한했다.

삼미에 1억원(계약금+연봉)과 숙박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장선수는 이번방한중에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작년도에 출범, 한국프로야구 첫해에 최하위를 기록했던 삼미팀은 프로야구협회로부터 1차 지명권을 얻었었다.

金聖鍾作

지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46>

출발 ㉗

"비행기 타자 풍만한 女體가 옆자리에…"

그의 외국어실력은 뛰어났다. 그는 사사끼·고로란 일본이름에 맞게 일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패스포트의 직업란에는 섬유업자로 기재되어있었다.

그는 조금도 의심을 받지않고 친절하고 정중한 예의를 받으면서 출국수속을 마칠 수가 있었다.

잠시후 그는 비행기 트랩을 올라가 1등칸의 오른쪽 맨 뒷자리에 몸을 묻었다. 출발 10분 전이었다.

그 10분동안 그는 뉴스위크지를 펴들고 이스라엘 특공대가 팔레스타인 게릴라본부를 기습해서 그간부들을 해치운 기사를 열심히 읽었다. 그 다음에는 경제문제를 다룬 기사에 눈을 돌렸다. 세계의 금시장에서는 금값이 폭락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누가 와서 앉았다. 여자냄새가 강렬하게 코를 찔렀다.

고개를 돌리자 동양계의 젊은 여자가 목례를 던져왔다. 그녀는 뒤늦게 급히 오느라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미소하고 다시 뉴스위크지에 눈을 박았다.

비행기는 정각에 이륙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홍콩의 밤하늘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점멸하는 불빛들이 꿈속의 환영처럼 아득히 사라져갔다.

여자가 의자를 뒤로 젖혔다.

한참 후 창에서 시선을 돌리자 여자의 미끈한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가운데가 터진 스커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허벅지가 풍만한 것으로 보아 볼륨이 큰 여자인듯 했다.

그는 여자쪽에 맞춰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상체를 눕혔다.

『일본인인가요?』

여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도톰한 입술 사이로 드러난 치아가 고르고 희었다. 눈이나쁜지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눈은 아름다왔다.

『그렇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자는 오른손을 올려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만졌다. 길고가냘픈, 섬세하게 생긴 손이었다.

『도쿄에 사세요?』

『그렇습니다. 아가씨는?』

『저도 도쿄예요.』

『반갑군요.』

『……』

여자는 미소하다말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긴장감이나 경계심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무렇게나 몸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있는 그런 여자 같았다.

여자가 갑자기 백에서 술병을 꺼내들었다.

『위스키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는 마개를 열고 나팔을 불었다.

『여행할 때는 술이 제일이에요. 자버리면 지루하지 않거든요.』

『좋은 방법이군요.』

여자는 다시 한모금 마셨다.

그는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여행중에 그는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참이었는데 아무래도 주정뱅이 아가씨때문에 번거롭게될것 같았다.

朴 男 그림

최초의 한인계 교회역사 연합교회 15년사

토론토한인연합교회(목사 이상철)의 「15년사」(1967~82년)가 나왔다.(국판·136면).

첫머리에 "캐나다에 온 한국인들", "이민교회의 성격"등 초창기 이민실정, 교회창립등 이민자료를 실었고, 동교회 약사·현황들을 사진을 곁들여 자세히 엮었다.

토론토 최초의 한인계 교회로서 이 한권을 읽으면 개신교 초기및 중기의 교회상과 이민현장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연합교회「15년사」표지

제5계절

한인양로원

황순일 (Canada Permanent Trust 부동산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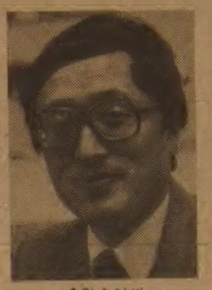
작년 7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노인문제회의에서 발표된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17년후인 2000년의 세계인구는 62억이 될 전망이다.

1970년의 36억에 비하면 174%나 된다. 60세이상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9.3%인 5억8천만명이 되며, 후진국에선 인구의 7%인데 반해, 선진국에선 인구의 17%나 될 전망이다.

캐나다의 경우 1971년에 65세이상이 174만명이었으나 앞으로 18년후인 2001년이 되면 334만명으로 두배로 늘어나게 돼 캐나다연금(캐나다·펜션)이 파산될 위기에 있다.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빈곤, 질병, 소외, 고독등 4고(苦)를 꼽고 있다. 그중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상당히 달성됐으나, 소외와 고독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아제한으로 출산율이 감소됐으나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문제는 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인양로원건립은 타당하며 때늦은 감마저 있다.

양로원이나 노인아파트가 건립된다고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는 마련된다. 한인전용양로원은 언어소통장애로 주위에서 소외돼 고독한 노부모님들을 위해 당장 필요하다는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황순일씨

한인전용양로원이 한인전체를 위해 건립되고, 그 재산권도 한인사회에 귀속돼야함은 물론이다. 한인양로원건립운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일부에서 「은밀히」 작업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목적을 논하기에 앞서 그 동기나 방법이 석연치않다. 또 이들이 한인회와 노년회가 마련한 당사자연석회의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수상하게 보인다. 신문에 보도된 교회나 단체의 대표자는 이제 떳떳하게 자기들의 소신이나 방안을 밝혀야 되겠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봉사사업인지, 경로심을 내세운 이권사업인지를 분명히 해야되겠다.

12일로 예정된 모임에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인회와 노년회가 얼굴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대답없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닐까? 공청회를 열어 교민사회의 중지를 모으고 교민사회의 인재를 영입, 기구를 보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명운동도 방법일 것이다.

신문들은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취급, 지상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지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장막뒤에서 비밀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소신을 밝힐 기회도 마련하고 이들의 움직임도 보도해야된다.

남보다 더 배웠고, 더 믿는다는 소위 〈있는 자〉들의 이권다툼이나 독선때문에 〈없는 자〉인 노인들이 피해자가 돼서야 되겠는가?

"한국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한이 없겠다"던 어느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새해로 넘어온 교민사회의 큰 숙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통일교 문씨세력 공화당등에 침투"

〈워싱턴- 〉 워싱턴의 한 연방의원은 5일 워싱턴의 신진우익지도자들과 문선명씨가 모종의 결탁으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이오와주 출신인 짐·리치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이끌고 있는 한조직의 신진우익지도자들이 통일교와 결탁, 서로 이용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톨·락살트 공화당 전국의장에게 이의 조사를 요구했다.

리치의원은 통일교와 신진우익지도자들의 결탁의혹을 실은 한 잡지기사를 공개하고 이들이 모금운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리치의원은 그 한가지 증거로 통일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워싱턴·타임스지가 독자증가운동에 공화당내 모금전문가의 우편발송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도중 청중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잡지기사가 확실한 사실과 조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인정했으나, 문선명씨가 신진우익계나 공화당 그리고 언론계에 침투하고 있다는 이 잡지기사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탁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그로버·놀퀴스트 전 전국대학 공화당위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항의하고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를 연방범죄로 얽어매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기사를 작성한 윌리엄·맥킨지는 편의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 기사내용이 『사실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방선거법과 세금관계 법규는 정치단체가 재단이나 교회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터보가동 83年 포드 승용차

선더버드

〈디트로이트- 〉 포드자동차회사는 5일 유럽의 관광형승용차들에 견줄만한 83년형 터보가동 선더버드를 새로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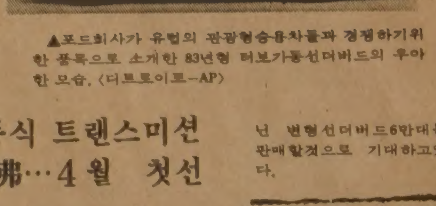
4기통에 수동식트랜스미션을 갖춘 1만1천7백90달러짜리 신형선더버드는 『이런 종류의 고급승용차로서는 미국최초의 것』이라고 도널드·피터슨 포드회사사장은 말했다.

유럽의 관광형 승용차들과 비슷한 특성의 엔진과 호화로운 내장, 높은 성능, 넓은 차내공간등을 비교할때 2만달러가 넘는 유럽차들과는 가격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피터슨은 강조했다.

공기역학적인 면을 감안해 설계된 선더버드는 또한 2.3리터의 엔진내에 있는 각실린더마다 전기연료분사장치가 되었으며 새로운 터보충전기가 조절판의 앞쪽에서 작동하기때문에 정지상태에서 9초내로 시속60마일까지 속력을 올릴수있다.

용접외에도 다른 접착방법을 사용해 차체부품들이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접합되었으며 충격흡수기가 종래의 차들처럼 수직으로 장치되었을뿐 아니라 차축과 차체사이에 수평적인 구조로 장치되었다.

올해3월1일부터 본격생산될 선더버드가 딜러에서 선을 보일 날짜는 4월1일로 예정되어있다.



▲포드회사가 유럽의 관광형승용차들과 경쟁하기위한 품목으로 소개한 83년형 터보가동선더버드의 우아한 모습. 〈디트로이트-AP〉

4기통에 수동식 트랜스미션 1만1천7백90弗…4월 첫선

터보충전이 아닌 형태의 선더버드도 이번 주부터 생산이 개시, 앞으로 수주내로 딜러진열장에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10월까지 포드회사는 미국내시장에서 터보선더버드1만대가 터보가 아닌 변형선더버드6만대를 판매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토론토시

정선·트라이앵글 지역
오염에 관한 공청회

토론토시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수) 상오11시 시청 제4소회의실에서 정선·트라이앵글(Junction Triangle)지역의 화공약품 오염에 관한 시장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심의한다.

이 보고서 사본은 사무국에 비치돼 있으며, 요청에 따라 배부된다.

관심있는 개인, 그룹, 단체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의견을 발표하고자하는 자는 83년1월18일 하오4시30분까지 사무국(367-7031)으로 통고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의견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Secrctary,
Toronto EXecutive Committer
City Clerk's Dep't,
City Hall
Tor, Ont,
M5H 2N2

Roy H Henderson 사무국장

한국인이 경영하는 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 Free 주차장
-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 주문시 배달합니다.
-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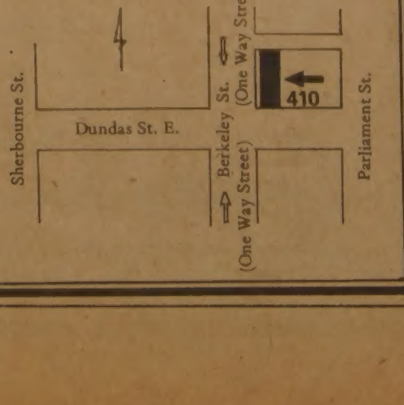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LUCAS YUM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ALLEN DUMA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이전공고

12월15일자로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이 다음과
같이 이전됨을 알려 드립니다.
입구는 Berkeley St.쪽으로 있으며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읍니다.

NEW ADDRESS:
410 DUNDAS ST. EAST
TORONTO, ONT. M5A 2A8
Phone: (416) 961-2417



중앙고교
동문께 알림

모교에서 정신배 선생님 토론토 방문 환영 디너파티에 초대합니다.
동문 여러분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3년 1 월14일(금)
저녁 7 시
장 소: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
연락처: 회 장 함태민 248-5131
부회장 한무웅 293-2399
총 무 강 웅 638-1482

중앙고교동창회

캘리포녀 海邊에 때아닌 水泳客들

▲이상기온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은 캘리포녀해변가에는 설퍼들이 몰려들어 신나게 파도위에 몸을 날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

이민사자료 접수
제4차로 50여점

본사 병설 한인이민사자료실(실장 이석현)에는 뜻있는 교포들로부터 소중한 자료기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연말 현재 접수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특히 길미자씨가 한국서적들을, 김정근씨는 캐나다 한인계 문헌다수를 기증했다.

◎제4차 접수 자료및 기증자.

◆고종옥신부

고마태오 자전소설 (1)「사랑의 지도」(2)「예수 없는 십자가」(3)「이 세상의 이방인」

고마태오 수상집 「고향에 못갈지라도」

◆길미자(시인)

(1)양치상시집〈저녁 점묘〉

(2)박정만시집〈잠자는 들〉

(3)김역식제4시집〈발간 고요의 빛물은〉

(4)이상범시집〈통화가에, 미닫이가에〉

(5)이은방시집〈채밀기〉

(6)황성이시집〈거울속에서〉

(7)승려21명저〈승려시집〉(제4집)

(8)이영춘시집〈종점에서〉

(9)김영수 제3시조집〈봄에〉

(10)여류10인시〈한국여성시〉(제2집)

(11)권사로설법집〈광명의 길〉

(12)여류3인시집〈문채신작시집〉

(13)22인시집〈환한 대낮〉

(14)22인시집〈눈발〉

(15)이채란시조집〈은행잎 지는 뜨락〉

(16)소재순시조집〈흙과 꽃과 사랑〉

(17)이금준시조집〈기우제〉

(18)황하택시집〈그날의 전선〉

(19)심상운시집〈고향산천〉

(20)문도채시조시집〈남도연가〉

(21)기노을시집〈부활〉

(22)기노을시집〈가교의 이미지〉

(23)윤선효시집〈염원〉

(24)김상묵시집〈김상묵사설〉

(25)〈강원아동문학〉(제6집)

(26)한국시조시인협회〈빛살들의 군무〉

(27)한국시조시인협회〈노래하는 항아리〉

(28)시문학회사화집: 5〈동성〉

(29)〈시와 수필〉(제5집)

(30)〈현대시학〉: 76년3월호

(31)〈4계문학〉: 제8집

(32)〈시도〉: 제15사화집

(33)〈여성과 새마을운동〉(보사부)

(34)E.A.버어트〈불교의 진리〉

(35)대장경 추억〈불교정신〉

(36)〈여기 밝은 빛이〉(조계종총무원)

(37)〈범씨〉: 4(부산시조문학회)

(38)〈예맥문학〉(78년봄 제3집)

(39)〈강원문학〉: 제6집(78년)

(40)〈법률〉: 76년 12월호

(41)〈불광〉: 80년 8월호

(42)〈열매〉: 82년 1월호

(43)제6회 강원도주부백일장(81년 10월)

(44)제5회 강원주부백일장 입선작품집(80년)

(45)사진「춘천시 전경」

◆김정근

(1)한국인천주교회주보「한맘」: (1호—69년 5월 11일)~3권52호(72년 1월 23일)

(2)토론토한인YMCA 뉴스레터: 2, 3, 4, 6, 7(77년), 동모국어프로그램 2점.

(3)〈실험〉창간호(78.12.1.)

(4)토론토한인계 각 교회주보 수10점

(5)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 관계자료 10여점

(6)토론토한인회보 72.1.27, 72.5.30, 72.8.10, 업무보고서(78.8.~11)

(7)토론토〈한인예술제〉(72.11.11.)

◆이웅건(UT생)

(1)〈징검다리〉: 창간호(토론토한인성당학생회)

(2)〈구름다리〉: 제7집(82년8월)

(3)〈해외한인교회〉: 82년 1월호, 10월호

(4)이석현 엮음〈한글공부〉1.

전화 섹스 성행
한번 통화에 $35

성병에 걸리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힐 염려가 없이 아주 자유롭게 성적인 판타지를 구가할 수 있는 신종전화섹스서비스(Dial—a—fantasy)가 토론토에서 성행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토론토의 일간지들에 광고를 싣고 있는 이들 전화서비스회사들은 크레딧·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통화에 $35이면 어떤 종류의 판타지건 충족시켜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같은 전화서비스회사 운영자들은 여성 혹은 남성 전화응답자를 고용, 고객들이 원하는 대화, 혹은 하소연등을 들어주며, 대화내용은 대부분이 성적인 판타지이지만 간혹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던가하는 개인적 욕구불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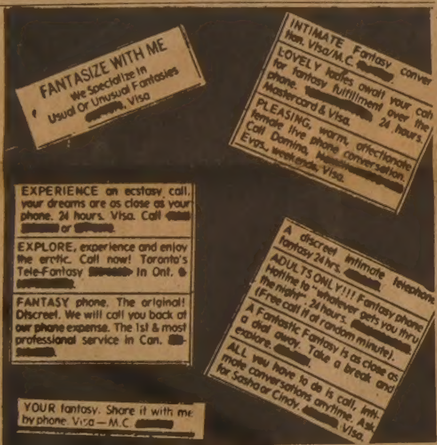
메트로 토론토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 불법영업의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육감적인 소리(Sensuous Sounds)"를 운영하고 있는 샤론·맥코넬여사는 자신의 다이얼·어·판타지 비지네스는 점잖빼며 성적으로 위축된 남성, 혹은 여성, 고독한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고객중 반이 기혼남성이며, 나머지는 독신남녀와 동성연애자들이다.

3개월간의 영업기간동안 50명의 고정고객을 갖고 있다는 맥코넬여사는 하루 24시간중 언제건 다이얼만 돌리면 누군가가 대화상대가 되어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이는 마치 전화로 연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내용이 반드시 섹슈얼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화로 고객을 상대해주는 남녀들은 교사, 배우, 소시얼·웍커, 주부, 부동산중개인등 직업이 각 가지.

외양은 상관이 없지만 목소리가 부드럽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하며 이들은 고객들로 받는 $35중 회사가 차지하는 $25을 뺀 나머지 $10을 받는다.



FANTASIZE WITH ME We Specialize In Usual Or Unusual Fantasies [redacted], Visa

INTIMATE Fantasy conver... Hon. Visa/M.C. [redacted]

LOVELY ladies await your call for fantasy fulfillment over the phone. [redacted] 24 hours. Mastercard & Visa.

PLEASING, warm, affectionate female live phone conversation. Call Damina, [redacted] Evgs. weekends. Visa.

EXPERIENCE an ecstasy call, your dreams are as close as your phone. 24 hours. Visa. Call [redacted] or [redacted]

EXPLORE, experience and enjoy the erotic. Call now! Toronto's Tele-Fantasy [redacted] In Ont. [redacted]

FANTASY phone. The original! Discreet. We will call you back at our phone expense. The 1st & most professional service in Can. [redacted]

A discreet intimate telephone fantasy 24 hrs. [redacted]

ADULTS ONLY!!! Fantasy phone Hotline to "whatever gets you thru the night". 24 hours. [redacted] (Free call if at random minute).

A Fantastic Fantasy is as close as a dial away. Take a break and explore. [redacted].

ALL you have to do is call, intimate conversations anytime. Ask for Sasha or Cindy. [redacted] Visa.

YOUR fantasy. Share it with me by phone. Visa—M.C. [redacted]

◆토론토 신문에 실린 전화섹스서비스의 광고.

오강남 〈속담풀이 시리즈〉④
도끼 제자루 못깎는다

지난 9월말 싸스카츠완주 싸스카툰시에서 열렸던 캐나다 의사협회 연례모임에서 발표된 학술보고서에 의하면 의사들중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자살자의 수가 의외로 많다

온타리오주 구엘프에서 온 벌빌·빈센트라는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의사라는 특수직업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고생하는 의사들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10퍼센트라고 잡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알콜및 약물중독, 그리고 자살의 경우가 생각하기보다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최근의 통설이라고.

미국에 있어서 남자의사들의 자살률은 동일연령층의 타직종 남성들의 경우보다 높고, 여자의사들의 경우는 일반여성들의 경우보다 3배 내지 4배나 더 높다고 한다. 영국에서 조사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의사들의 부인들이 자살하는율 역시 타직종남자들의 부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

빈센트 의사는 의사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의사부인들은 남편들이 의과대학, 인턴, 레지던트시절을 거치는 긴 세월동안 여러가지 고생을 참으면서 「고생끝에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남편이 개업을 하고 자리를 잡았어도 역시 오랜 시간 힘들여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분노와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것이라고. 의사부인들은 자기들이 「정서적 과부들」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남편들이 환자들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 역시 역겹게 생각된다고 한다.

빈센트 의사는 의사들이 약물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밝히면서 「처음 단계에는 스스로 약물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현명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염려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게 되지만 결국은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중 특히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불안정된 정신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칠 확률이 크다고 한다. 어릴 때의 경험 때문에 정신적 불안을 느끼는 나머지 남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존경하며 인정하도록 하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된다.

남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는 지나친 노력 때문에 오랜 시간 외곬수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파로, 디프레스, 회의, 불안등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욱 일에만 열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의사들은 자기들이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려든다. 대부분의 경우 이 치료라는 것이 알콜, 가벼운 진정제, 최면제 같은 것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강한 자극제나 마약같은 것으로 바뀐다」고.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토론토대학에서는 실험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문학, 철학, 종교등 인문과학의 과목들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끼가 제 자루를 못 깎는다. 처음부터 아예 나중에 가서 더 이상 깎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참하게 생긴 자루를 갖춘 도끼를 생산해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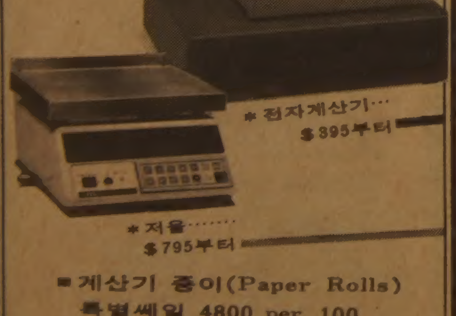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TEC
전자계산기
저 울



＊전자계산기…
$395부터
＊저울……
$795부터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쎄일 4800 per 100
＊모든 기계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UNPAINTED FURNITURE
"믿을수 없는 가격"
한번 들려주세요!!
FOR SALE
CONTENTS OF FACTORY

DRESSER $88.00
NIGHT TABLE $29.95
36" x 72" $98.00
BOOKCASE 36" x 36" $29.95
DESK $69.95
MANY OTHER ITEMS AT SIMILAR SAVINGS
BUNK BEDS $99.95
MATTRESSES TWIN DOUBLE $49.95
⊕페인트칠 없는 나무 그대로의 원제품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등에 각종 비품 대량공급.
NORTH PARK DISTRIBUTORS
3368 YONGE ST. 488—7911
(7 Blocks North of Lawrence)

BAUME & MERCIER
GENEVE
1830

73 countries over the 5 continents
International guarantee
Ass Manager
지니·장(Mrs.장)
TORONTO EATON CENTRE
DeWitt
JEWELS LIMITED
3RD LEVEL
Main Floor
979—9920

한국일보

韓半島 긴장상태 認定

日은 南北對話지지·經協에서 성의

韓·日공동성명 마무리

도착聲明서 「不幸한 과거」 유감표시

【東京=宋孝植특파원】 오는 11, 12일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中曾根康弘) 일본수상간의 韓日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될 공동성명은 ①韓日양국이 韓半島의 긴장상태가 상존하고 있음을 인정, 日本은 韓國의 방위노력을 평가하며 韓半島의 안정이 日本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명백히 하고 ②日本은 성의를 갖고 對韓경제협력을 추진하며 ③국민적기반위에서서 선린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게될 것이라고 日本외무성관리들이 6일 말했다.

이관리들은 이날 韓日양국관리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공동성명문안에 대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韓半島의 安保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日本은 南北대화의 추진을 지지하며 對韓經協에 성의를 갖고 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싣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동성명의 韓日안보관계조항에 대해 日本의한 관리는 7일 韓日안보관계 조항의 표현내용이 종전의 對韓정책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하더라도 그의의는 매우큰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리는 『韓日안보관계가 戰後최초의 韓日정상회담에서 채택되는 공동성명에 포함된다는것은 앞으로 韓日관계의 기초가 되는것』이라고 말하고 『이런점에서 이번韓日안보관계표현내용이 지난 80년9월 韓日정기각료회담에서나온 공동신문발표문과 거의같은 것이기는하나 그의의는 특별한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은 日本의 과거 식민지통치나 최근 日本의 역사교과서왜곡을 둘러싼 韓日간의 외교적분규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대신 나까소네수상이 11일 金浦공항 도착즉시 도착성명을 발표, 이도착성명에서 과거의 韓日관계에 있었던 불행했던 일에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기반위에선 韓日우호관계의 확립을 제의할 예정이다.

經協문제에서도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인 금액문제등을 언급치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 6일 서울에서가진 韓日정상회담준비회의에서 韓國측은 공동성명에 韓日두나라가 안전보장상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한 69년 사또(佐藤英作)—닉슨공동성명의 이른바「韓國조항」을 부활시킬것을 요구한것으로 日本신문들이 보도했다.

마에다日대사 歸國
어제, 政務협의차

마에다·도시가즈(前田利一)駐韓일본대사는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의 訪韓과 관련, 정부협의차 7일 하오6시 일시귀국했다.

마에다대사는 귀국에 앞서 이날낮 외무부로 李範錫장관을 예방, 40여분간 韓日공동성명의 내용에관해 의견을교환했다.

이자리에선 공동성명 文案의 절충작업과함께 경제협력의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崔慶祿 駐日한국대사는 나까소네수상의 訪韓과관련한 정부협의차 8일 일시귀국할 예정이다.

韓·日頂上 두차례會談

나까소네(中曾根康弘)일본수상은 11일하오 특별기편으로 來韓, 11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全斗煥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공통관심사에관해 폭넓은의견교환을 가질것으로 알려졌다.

나까소네수상은 11일 金浦공항도착후 청와대를 예방, 1차 首腦회담을가지며 이어 이날 저녁全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예정이다.

나까소네수상은 12일상오 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丁來赫국회의장과 金相浹국무총리를 예방한뒤 全대통령과 2차 수뇌회담을 갖고 이날 하오 귀국할 예정이다.

나까소네수상은 두차례의 수뇌회담을 갖는외에 12일낮에는 우리나라 政·財界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離韓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韓日外相회담은 12일상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大學교육 협의회
民正, 法人化추진

정부와 民正黨은 대학入試와 졸업定員制등 제반學事문제를 自律的으로 다루도록하기위해 「대학교육협의회」를 法人으로 하는내용의 「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할방침이다.

黨의 한 정책관계자는 7일 대학學事문제를 대학總學長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효성있게 다루기위해서는 이 협의회를 法制化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에 관한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 既存의 民間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를 독립된 특별法人으로 格上시키는 문제를 정부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任員·大卒초임 凍結유도

生産職우대 차등引上권장
계층간 임금격차줄이기로

勞動部, 83賃金조정지침마련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을지난해의 물가상승률및 물가전망,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기업의 지불능력등을 고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짓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7일 산하기관에 시달한 『83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에 의하면 학력위주로 짜여진 현재의 임금구조를 과감하게 개선, 생산기여도와 노동특성에맞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저임금을 일소해 계층간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기업의 이사등 임원과 상위관리직등 고임금계층과 대졸자의 초임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폭으로 인상토록하고 임금격차가 심한 생산직 및 하위직을 우대하는등 차등인상을 적극유도키로했다.

노동부는 또 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위해 고졸·전문대졸·대졸자를 대상으로 동일학력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초임은 동일수준 또는 기능자격을 가진자는 생산직을 우대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인상방식도 이제까지의 평균인상방식에서 하후상박의 정률조정방식으로 바꿔 저학력생산직을 많이 올려주고 고학력·사무직·관리직은 저율인상토록 할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저임금해소를위해 섬유, 신발등 10개업종의 30인이상 3백인미만의 사업장가운데 저임금 기업을 대상으로 지불능력이있는 사업체는 저임금기준 이상으로 일시에 조정토록하고 지불능력이 미약한사업체는 최하위계층부터 최고인상률을적용, 저임금 기준선에 접근시키도록했다.

政治懸案 의견교환
어제 3黨대표會談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대표들은 7일하오7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당면정치현안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李載淺民正黨대표위원의초청식으로 이루어진 이날3黨대표회담에서 야당측은 작년6월 青瓦臺3黨대표회담에서 거론됐던 地自制실시문제등 소위政治議案처리에대한 후속조치가 미진했던점을 들어 여당측에 이의점진적인 개선을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새해국회의운영방향과 아울러 國政전반에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18일 臨時國會소집

【釜山=李以春기자】 정부와 民正黨은 제1백15회 임시국회를 18일로앞당겨 소집할 방침이다.

釜山市지부 黨舍이전 현판식에 참석하기위해 7일 釜山에내려온 權翊鉉 사무총장과 李鍾賛총무는 이날『당초 24일께 소집할예정이던 제1백15회 임시국회를 며칠앞당겨 18일 소집키로 정부측과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말하고 『당초 예정했던 24일께 국회를소집할경우 지구당개편대회와 중복이되어 소속의원들에게 번거로움을 줄수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民正黨은 임시국회를 앞당겨 열게됨에따라 당초 17일부터 실시키로한 지구당 개편대회도 20일로늦추어오는2월15일께까지는 모두끝낼방침이다.

亞·太의원연맹총회
한국대표 7명파견

국회는 오는15일부터 20일까지 괌島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太平洋의원연맹(APPU)총회에 鄭石謨(단장) 裵成東 李潤子(이상民正) 李廷彬 金德圭(이상民韓) 趙炳奎(국민) 李龍澤의원(議政)등 7명의 대표단을 파견키로했다.

대표단은 오는11일 현지로 출발한다.

民正、有力인사 迎入

學界등 직능단체별로 人選작업

民正黨은 오는 3월말께로 예정된 創黨이후의 첫全黨大會를계기로學界、언론계、法曹界、실업계등 각직능단체의유력신진인사들을대거 迎入할 방침이다。

民正黨은 이를위해 현재전직 高位정부관리、퇴역軍장성、財界등의 참신한인사들을 상대로 迎入人選작업을진행중이며 일부인사는 이미필요한 入黨절차를 밟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黨의 한관계자는 7일 이문제와 관련、『현재 영입을 고려하고있는 인사들은 各직능 단체의 인사들로 이들은 현재 확대개편중인 黨중앙위의 중앙위원으로 영입될예정이며 85년선거와는無關하다』고 밝혔다。

民正黨은 또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早期에 선거준비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아래 黨의 조직·선전·정책등 여러측면에서 획기적인 黨기구補強작업도 병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成績받자 눈치싸움부터…

◇대입학력고사성적이 7일상오출신학교별로 일제히 수험생들에게 통보됐다。수험생들은 대부분 미리 점쳤던 점수를 받으면서도 즐거운 표정이었지만 유례없는 고득점사태로 이제부터 시작될 눈치싸움을 의식한 탓인지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서울培花여고에서=李昌淳기자】

通貨、安定기조 회복

12월末 총통화殘額 20兆4백62億

지난해 하반기중 안정기조를 위협할만큼 많이 풀려났던 통화가 韓銀의 강력한환수책에 의해 크게 줄어들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2년중 통화동향에의하면 지난 12월말의 총통화(M2)잔액은 20조4백62억원으로 81년말에 비해 27.8%의증가율을 보여 연말목표인30%선을 하회, 통화의 안정기조회복이 가능하게됐다.

이에따라 韓銀은 올해 총통화증가율 목표인 연중24~25(평균잔액기준)、연말20~22%를 무리없이 달성할수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11월말까지만 해도 30·9%수준으로 늘어났던 통화증가율이 연말에 크게줄어든것은 거액어음 사기사건의 후유증이 일단된 8월이후 韓銀의 강력한 통화억제시책이 효과를 나타냈고제2금융권의 활성화및 내수경기의 호전등으로 기업의 은행대출수요가 줄었으며 정부의재정적자폭이 줄어들고 해외부문의 환수가 확대됐기때문이다.

정부부문은 稅收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긴축운영과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81년의 7천6백25억원에서 지난해는 1천1백6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민간대출은▲어음사기사건이후 기업의 은행대출수요증가▲경기활성화대책에따른 주택자금및 중소기업자금의 공급확대▲금리의 대폭인하로인한 대출증가때문에 82년중 5조3천66억원이 공급돼 81년중 4조7천5백36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해외부문에서는 무역수지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장단기자본도입이 부진, 해외순자산의 감소가 81년중 24억달러에서 82년에는 27억달러로 확대됐다.

오늘부터 강추위

全國이 零下圈에

소한추위가 주말께연착, 전국을 영하권으로얼어붙인다. 중앙기상대는 7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봄날씨처럼 포근하고 한때 비까지 뿌렸던 이상난동날씨가 주말인 8일부터는 제모습을찾아 서울이 영하7도 春川영하9도 大田영하7도 光州영하3도 大邱영하3도등으로 급격히 기온이떨어질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날씨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휴일인 9일에는 서울 영하10도, 春川 영하14도, 光州 영하4도, 大邱 영하8도로 한차례 강추위를 몰고올것이라고 예보했다.

社會漫評

목표는 「全人同點」…

地平線

최근 갤럽여론조사는 한국사람들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83년을 樂觀的인 해가 될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권위있다는 이 美여론조사기관은 새해를 가장 樂觀的으로 전망하는 측은 그리스사람들이며 樂觀論者의 비율이 悲觀論者보다 41%나 많았다는 것이다。한국의 경우는 樂觀論者가 33% 더 많은 비율이라한다。선진국중에서는 미국의 樂觀論者들이 18%, 영국은 13%, 일본은 3%정도 悲觀論者보다 더 우세했다는 보도다。▼우리 한국인이 그처럼 83년을 樂觀的으로전망했다는 조사결과에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듣기싫은 뉴스임에는 틀림이 없다。옛 先人들은 우리 民族性을 두고 樂觀論과 悲觀論이 상반하게 교차되어있다고 말했지만 일반적으론 悲觀쪽이 더 심한 것으로 보여져 왔기때문이다。울음과 눈물을 빼놓고는 한국사람들을 평할수 없다는 설이없지 않다。그 슬픔과 눈물의 대부분은 옛날 한때의 가난과 굶주림에서 온것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인 슬픔이 아니라 형이하학적 울음이었던 것으로 평하는 사람도 있다。▼원래 民族性이란 개념은 다소 애매하여 恒久不變일수는 없다。또 그 民族性이 地理 기후같은 환경조건과 역사, 인습,생활습속,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게되는 것도 부정할수 없다。한국사람들이 83년을 樂觀的으로보았다는 여론조사자체가 얼마만큼 우리들의 현실판단을정확하게 반영했는지는 문제다。民族性과 관계되는 온갖 與件들이 한국 사람들의 樂觀的 견해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도 생각해볼일이다。▼우리는 스스로는 悲觀的으로 사물을 평가한다고 자탄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나 외국사람들 눈에는 한국사람이 공세적이고 활달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다。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한美행정부관리는 시민들의 표정이 행복하게만은 보이지 않았으나 서울의거리가 매우 활기에 차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문제에 많은 관심을가진 이관리는 그가 예상했던것보다 서울의 표정은 밝았다고 말했다。▼세계 속의 한국위치는 이제 고요한 「隱者의 나라」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것은 아니다。미국에 가있는 한국이민들의 평균생활은 미국중산층수준에 육박하는실정이다。이들이나 中東에 가있는 한국인들이 모두 활달하고 희망에 차있다. 곧 한국을 방문하는 나까소네일본수상마저 「한국말」을 익히고 있다고 했다。70년대 한국은 경제성장의 본보기로 세계서 평가됐고 今世紀末이면 先進國대열에 발돋움하게 될것이라고 한 外誌는 보도했다。이런 樂觀이 계속되고 현실화하기를 바라고 싶다。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 960—1765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밴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競爭일변도 일단멈추고 成長준비 서둘러"

유럽서 본 올해의 세계景氣

기욤博士 인터뷰
파리=安炳璨특파원

기욤博士 프로필

에콜·폴리테크니크(파리이공과대학)및 국립경제행정통계대학출신의 경제학박사 경제국토개발계획상 미셀·로카르레의 선추적 경제이론가。1974년 자크·아탈리교수(현미테랑대통령경제특보)와 공저「反經濟學(Anti-economigue)」를 펴내 미국이론경제학자사무엘슨의「經濟學」에 반론을 제기했다。경제국토개발계획성 기획처소속「장기문화연구그룹」책임위원인 그는 경제발전에 문화가 선행해야 함을 강조한 보고서「절대필요의 문화」를 최근완성。자본주의정통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을 다같이 비판하는 그의 입장은 프랑스 집권사회당의 독특한 경제실험및 문화정책과 맥을 같이한다。파리도핀대학(7대학)조사연구소장, 에콜·폴리테크니크교수, 문교성고등 교육자문위원。著書로 자본과복제(75) 무질서 예찬(78) 유산의 정치(80)가 있고 현재「신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집필중。

安특파원=불황이 세계경제를압박하고있어낙관론자조차 성장의날이최소한2년후에나 올수있다고말한다。보수정책가들이 전통적처방에만 매달린다는 비판도 없지않은데。

▲기욤박사=세계는 74년 석유파동이래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쳐 지금은 악성 디플레이션의 위협앞에놓여있다。이는 미국의 보수정책、특히 미국의 통화정책때문이다。레이건통화정책은 인플레억제에는 좋은결과를 가져왔으나 전공업국에 디플레효과를 파급되었고 동시에 경제성장률의 감소를 초래했다。실업률기록은 82년9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10%선을 넘었다。서독도 갑자기 5%가 뛰어 7·5%인 1백90만에 달했고 83년에는 9·5%가 되리라는 예외적 상황이다。인플레에대한 투쟁이 경제의 마이너스성장을 초래했는데 다시 경제가 회복할때 인플레와 이자율도 고개를드는 취약성을안고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83년도 세계경제예보가 다시 어두워졌는데。

▲82년의 회복전망이 빗나간것은 미국의 경제정책、일본및서구의 불투명한 정책、제3세계국가들의 재정악화등 원인때문이다。나 개인적으로 여러 예측센터의 수치를 종합하여 83년도 성장률을 대략 계산해보니 미국2%、일본3%、서독0%、프랑스1%、영국약간능으로 나왔다。이것은 어두운 전망이나 OECD보다는 좀더 낙관적이다。OECD예측대로라면 재앙에 속할것이다。미국、서독、일본의 경기부양정책에의한 변화를 기대해보고 새로운 기술개발도 경제를 뒷받침 할수있다고본다。

—정책결정자들은 인플레의 공포때문에 소비력의 강화、자금공급의 증대를 주저한다。세계경제를 자극할 처방은 없을까。

▲각국마다 처한상태가 다르므로 어려운 질문이다。미국은 소비자에 압력을가해공업력을 부활시키려한다。바로 통화정책에 기초한 전통적방식의 채용인데 이때문에 사회복지가 피해를 보았다。다른 한편 미국은 공격적 경제정책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일본의 나까소네정권역시 스즈끼때보다 더욱 미국정책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금은 모두가 병들어있는 상태다。1위를 다투는 경쟁자의 양상은 모두에게 해롭다。보호무역주의 역시 전망치못한 암시장이다。그것이 경제력의 불균형을 유발하면 새로운 경제위기를 낳는다。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새목표를 설정한 세계적규모의 경제법칙、경제전략을 찾아 방향을 바꾸지않으면 안된다。

—38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총회는 불황의 피해를 줄여보기위해 보호주의의 무기화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美·日·西獨등 低速성장 새 貿易질서 모색추진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경쟁이론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블록에 의해 거부됐다。경쟁성이 강한 미국과일본은 각국에만 유리한 자유무역을 지지했고 유럽은 그런식의 경제전쟁을 수락하지않을 능력을 보여줬다。미국과 일본의 경쟁력은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위협하다。한편 프랑스가 유발한 포아티에의 10자군전쟁(註·일제비디오상품통관 절차를 국세관이 아니고 중세사라센과의 격전지였던 내륙 포아티에세관을 거치게 한 보호무역조치。일본 히다찌社가「우리는 사라센이 아니다」라고 항의하는소동이있었음)도 나쁘다。그것은 행정적게릴라와 다를바 없다。무역의리베럴리즘도 보호주의도 부정적인것이다。지중해연안국가는태평양국가에서 교훈을 받는한편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중간쯤의 휴전상태로가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그리하여 블록간에 한계를 둔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한다。

—무역전쟁의 불확한 양상은。

▲무역전쟁에는 4극(極)이 있다。첫째 태평양권 둘째 EC권 세째 동구권 네째 제3세계권이다。심각한 것은 태평양국과 유럽국사이다。미국·일본이 선도하는 태평양국이 유럽에대해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있다。이때문에 유럽은 동구권과 라틴 아메리카및 북아프리카를 끌어들여 동맹관계를 맺으려한다。일종의 계약관계、연대관계를 맺어 태평양권에 맞서자는 것이다。예를들면 프랑스는 알제리와 국제가격보다 10%나 비싼값으로 가스수입계약을 맺었다。알제리에 투자하여 정치적 그룹을 짜기위해서다。나는 이것을 새로운 블록형성의 초기단계로본다。그러나 미국의 대소련 식량수출、유럽의 대소련 송유관수출에서 보듯 이는 복잡하고 위험한게임이다。프랑스정부안에서도 아프리카정책을 놓고 의견이대립되어 해외협력담당관 코트가 사임했다。(註·미테랑보좌관 팬느의 전통적 접근과 인권등을 결부시킨 코트의 이념적 정책간의 대립이었음)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세계무기시장의 영원한 전쟁이다。존·갈브레이드는「전쟁의 경제적 유인성」이라고 했는데 어떤면에서는 무기무역이 불황을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프랑스가 무기판매로 무역적자를 메우는것은 사회당정부의 정책에 상치한다。

保護정책이 危機불러
서로 補完役으로 突破口찾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증자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신용위기를 막자는 움직임을 보인다。몇몇 국가의 파산을 구제하여 국제경제불황의 심화를 예방하자는 의도에서인데。

▲그것이 불가피한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빈국의 재정을 돕는 새통화제도가 필요하다。

몇몇국가들이 IMF를 남용하는 경향이있는데 규칙을 준수토록 의무화해야 할것이다。멕시코나 베네수엘라는 빈국이 아니다。문제는 여기에있다。돈이 나올수있는 나라에는 돈이가고 빈국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자금을모아 건설적으로 재투자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83년의 한국경제를 전망한다면。

▲우리그룹가운데는 파리10대학의 샤를르·알베르·미샤레교수、파리13대학의 장마리·슈바리에교수가 그방면의 연구를 하고있다。한국경제는 군사적규율의 경제체제로 놀라운 성장을 했으므로 프랑스도 한국모형을 찬양한다。65년이후 한국은 수출전략을 바꾸었는데 국제상황、국제시장에 의존해온 이전략은 각국의 보호주의와 임금상승에따른 경쟁력약화로 곤경에 처해있다。한국은 자체의 국내시장을 개발하고 수출과 수입을 혼합하는 전략을 채용할때다。그러나 한국경제는 낙관적인듯 보인다。

—83년의 프랑스경제정책과 세계경제전망은。

▲프랑스사회당의 정책은 70년대의 정책과 반대의 흐름이다。과거프랑스는 부양정책속에서 2차의 평가절하를 거쳐 생산성、경쟁력이 약화됐었다。자크·드로르 경제재무상의 안정정책은 제한적 성공을 거두셈이지만 너무늦었다。

산업정책은 완만하고 기업활동은 둔화하여 나는 최근 프랑스가 3차의 평가절하를 하지않을수 없다는 생각이든다。지나친 국유화와 관료화도 좋지않아 최근에는 경제정책의 타협이 있었다。

83년이 어떤해가 될것이냐 하면 막간(幕間)과 같은 해가 될것이다。약간의 인플레를 동반한 약간의 성장은 있겠지만 전세계적차원의 재정문제가 제기될 것이다。유럽은 83년에 경제력을 동원하려 할것이지만 미국、일본보다 더 잘 동원키는 불가능하다。83년은 경쟁의 휴전을 하고 하나의 준비기간으로 상황에 대처할때다。

메아리

머리

대한민국 학력고사의 성적이 발표되자 머리打令들이 한창이다。이웃집 누구네의 아이는 머리가 좋아 몇점을 땄다는데 우리집 멍텅구리는 아유, 글쎄 2백점도 안된다지 뭐요, 하는 한숨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출제가 너무 쉬웠다고는 하지만 高點에서 단 1점이모자라는 득점자도 있다니 그 머리가 부러울수 밖에 없다。入試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평소에 잊고있던 머리들을 생각하게 된다。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모두 머리로만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때 인간이 자기 두뇌의 위대함을 안것은 매우 늦은셈이다。사람의 腦가 자기腦에 대해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고 이것은 인류사의미스테리의하나로 되어있다。心臟이 발달한 그리스시대에도 사람들은 腦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채 기껏 腦는 冷却用 정도로만 생각했다。腦가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것은 18세기말 동양의 한 젊은의사가 두뇌와 정신은 밀접한 관련이있다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부터다。

神이 창조한 만물중에 가장 복잡한것이 사람의 腦라고 한다。神經系의 단위는 뉴론이라는 極微의 세포인데 인간의 두뇌속에는 1백억개이상의 뉴론이 있다。세계총인구의 2배가 넘는 숫자다。세계의 모든 인간이 전화를 가지고있어서 서로 어느전화와도 직통으로 통화가 되는 상태를 생각하면 사람의 腦의크기와 복잡함을 짐작할수 있다。이런 腦조직이 학력고사에서 3백점이상 짜리를 내게도하고 百點짜리를 내게도 한다。

코란經典을 6일간에 걸쳐 6천6백66행이나 줄줄 외었다는 어떤 터키사람이나, 종이가 없어서 담장에서 쓰지못한 3백일분의 일기를 나중에 한가지도 빠뜨리지않고 한꺼번에 써냈다는 어떤 일본사람이나 그 기억력의 天才性이 다 이 腦세포의 농간이다。

天才와 天痴는 종이 한장 사이라고들 한다。발명왕 에디슨이 국민학교시절 바보취급을 당한것은 유명한 이야기다。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어릴때 부모들은 遲進兒가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다。작곡가인 바그너는 낙제해서 결국 퇴학했다。한때 세계를 英語하나만 가지고 누비고 다닌 키신저는 학교시절 가장 어려운 과목이 英語였다고 한다。세상의 鈍才들에게 용기를 줄 이런 해프닝도 腦의 장난이다。

머리가 커서 腦가 무거우면 머리가 좋다고 흔히 생각한다。과연 그럴까。사람의 腦는 자꾸 커진다。氷河期의 前期와 後期사이에 특히 인간의 뇌가 커졌다。현대 성인남자의 뇌는 무게가 평균 1、350g이다。人智의 발달과 함께 腦가 자꾸 커져왔다면 그 크기가 지능과 관계가 있는것 같기도 하다。類人猿의 腦무게가 450g에 지나지 않은것을 보면 역시 그럴법하다。그러나 先史시대의 네안데르탈人도 현대인과 비슷한 무게였다。영국의 정치가 크롬웰이나 시인 바이런은 각각 2천g이 넘어 腦 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프랑스는 단 1천g밖에 되지않았다。학자들은 크기와 지능과의 관계를 못밝힌채 머리는 쓰기 나름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만 설명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인간은 뇌를 능력의 5%정도밖에 쓰지 않는다。인간은 고도의 知的능력의 극히 적은 부분밖에 이용하지 않고있고 두뇌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인간이 뇌의 힘을 보다 완전하게 썼을때의 驚異를 5%밖에 가동하지 않는 腦의 힘으로는 짐작하지 못한다。光素子라는것이 최근 개발되어 人智의 凱歌라고 소리높이지만 인간의 무진장한 가능성의 조그만 표현에 불과하다。

컴퓨터가 작년말 타임誌의「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고 화제가 되었다。사람이 많은 컴퓨터에 사람이 밀려나는 것같지만 만일 우리의 腦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더욱 자세히알게되면 그 지식은 더욱 인간두뇌에 가까운 컴퓨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연구하는데 머리를 더 써야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海外토픽

갤럽 여론조사

"당장 美大統領선거 實施하면 레이건、글렌-먼데일에 진다"

오는 84년에 실시될 大統領 대통령선거가 지금 당장 실시된다면 레이건 대통령은 民主黨의 존·글렌 상원의원(오하이오州)이나 월터·먼데일前부통령에게 大敗할것으로 최근 실시된 갤럽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이 84년 대통령선거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하지않겠다고 발표한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글렌의원은 케네디의원대신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가장 인기있는 인물로 지목됐다。

6일 공개된 이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레이건대통령과 글렌의원이 지금당장 대통령선거전을 치룰경우 글렌의원이 총유효표의54%를차지、39%의 레이건에 압승을 거둘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外電】

◇今世紀 최고暖冬 屋外수영만끽
『今世紀들어 가장 따뜻한 一월로 일컬어지는 異常暖冬속에 西獨 프랑크푸르트의 개구장이소년들이 屋外풀에서 수영을 즐기고있다。【프랑크푸르트6일AP誌=聯】

목소리로 飛行조종
★美空軍 시험서 성공

미국공군은 조종사가 손하나 까딱하지않고 목소리로비행기를 조종할수있는 컴퓨터체제를 개발、시험비행을 끝냈다고。

이컴퓨터제조회사인 시글러사의 한 간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의 에드워즈공군기지에서 F16전투기로 이컴퓨터체제를 시험했다고 말하고 적어도 80년대말까지는 실용단계에 들어설것이라고전망。

이간부에 따르면 조종사가 36가지의 서로 다른 명령을 미리 컴퓨터에 기억시켜놓았다가 폭탄을 투하하고싶을때 커다란 목소리로 명령만하면 폭탄이 투하되게 된다고。【그랜드래피즈(美미시간州)=聯】

올해 政局은

各黨 全黨대회와 要職개편전망

民韓黨

舊野·院外인사 迎入등 體質개선 몸부림

黨3役 안배가 최대촛점

異質요소 同質化로 共感帶형성이 문제

◇올해로서 創黨3년에 접어드는 民韓黨은 오는12代總選등 앞으로전개될 새로운政治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自省과 자기改革이 기대되고있다。사진은 지난해 議員總會。

創黨 3년을맞는 民韓黨은 요즘전당대회라는 정치행사를 앞두고 지구당대회로 전국 각지역서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당대회의 大會戰을 준비하는 緒戰격인 각지구당대회에서는 지나온 2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잘했다」는 讚辭도 나오고 있고「잘못했다」는 반성의 소리도 들려 오고있다。

民韓黨이 현재 안고있는 착잡한 고민은 여러갈래로 나누어볼수 있을것같다。

우선 第一野黨으로 창당때부터 정통野勢를 이어받았다고 자부하지만 지난2년동안 얼마만큼 국민속에 건전야당、정책야당 受權야당이란 이미지를 심었느냐하는데는 적지않은 異論이 나오고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柳致松총재가 말한대로 앞으로있을 舊野인사 院外在野인사들과 협력을모색할때 어느정도 융화를 할수있는가도 숙제로 제기되고있다。

또한 民韓黨의 자기반성은 지난2년의 정체행적이 그리 적극적이 아니었다는 소극적 평가도 한 요인이 되고 있는듯하다。

이밖에도 混合型당내 체질의 同質性확립문제、그리고 이론적 자세가 스스로의 영역을 좁히지나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온다。

3·25총선에서 81석을차지한 民韓黨은 11代 국회전반부를 어느 歷代의 야당 못지않은 비판견제세력으로서의 구실을 했다고자부하는 소리도 높은게사실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宜寧경찰관 총기난동사건부터 李·張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에대한 집요한 비판과 예산안의 방위비 삭감、특히 세법에 있었던 光州사태등 舊시대 사건관련자들에대한 석방조치등을 큰수확으로 내세우고 있다。정책정당으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議政활동으로통해 보여준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와 當시대野黨이 지닌 고질적인 자세를 탈피하려는 노력들에 못지않게 黨內·外로부터의 비판도 적지않은듯 싶다。

비록 어려운상황이라 하더라도 비판견제의 역할을 어느정도했으며 이른바 未來의 受權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국민속에 實體化시키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점이 지적될수있다。

그동안 줄곧 지도부는「할만큼은 했다」고 그런대로 만족해 왔지만 少壯의원들은『安住의 자세를 탈피하라』『自生力을 회복하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새로운 자세의 정립을 주장해왔다。

특히 이러한 자세전환의 욕구는 院外의 일선당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때문에 지금 한창 진행중인 지구당 개편대회에대해서도「一絲不亂한모습」과「식은熱氣」를 두고 보는이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다。

당권파로서는 一絲不亂의 의미를 團合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있지만 非당권파로서는 식은熱氣의 의미를 休火山의 성격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대회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黨지도부에대한 비판세력들이 제모습을 드러내기시작하면 앞으로 전당대회나 그뒤에있을 黨職改編에 새로운 變數요인으로 작용가능성도 없지않다。

아직은 柳致松총재가 單獨질주하는 일방부드이기는 하지만「颱風의 눈」으로 알려진 辛相佑전사무총장등의 도전이 만만치않을 경우 당내氣流도 심상치않게 작용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더구나 당내에는 黨權을 겨냥한 세력은 아니더라도 총재의 지도 노선을 비판해온 세력、후보單一化論을 거부해온 세력、전당대회 이후의 黨職을 겨냥한 세력들이 곳곳에 潛伏해있는 상태다。

현시점에서 본다면 柳총재의 再選이 가장 유력한 전망이라고 하겠지만 黨內外의 관심은 역시 可變性에 쏠리고 있다。

黨權경쟁의 양상이 어떤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결말을 가져오든 우선 현재의 黨職者들이 상당수 바뀌는 體制정비는 불가피할 것같다。

柳총재도 正初에 자택을 찾은 당간부와 당원들에게『새해에는 黨도 크게刷新해야할것』이라고 대폭개편을 示唆한바있다。

금년4월 임기가 끝나는 국회부의장에는 金殷夏현부의장의 留任說과 劉沃祐 李泰九부총재、高在淸전원내총무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집권 民正黨의 개편 향배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닐것이라는 說도 나돌고있다。

丁來赫의장이 재선될 경우 金부의장說이 유력하며 L씨가 될 경우는 劉부총재나 李부총재、C씨의 경우는 金부의장이나 高전총무의 파트너說도 심심치않게 나돌고있는 형편이다。

부총재에는 柳총재의 재선을 전재로 辛相佑전총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명은 국회부의장후보중에서 人選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소위 黨3役에는 2選인 柳漢烈 사무총장 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 金元基당무위원등이 전당대회의 論功여부、지난 국회에서 실력 발휘、원만한 人品등을 주무기로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3選의 吳洪錫 金承穆의원등이 중진의 관록으로 거론될것이 확실하며 일부 초선의원의 도전도 나타날 조짐이다。

上位 3役의파문인 下位 3役은 어느黨職보다 경합률이 높을 전망인데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初選의 의원、L의원、K의원등이 동료의원들의 추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임명될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은 5∼6명의 현역이 탈락되는대신 2선의 趙重衍 劉鎔根의원、초선의 N의원、L의원、H의원、K의원、S의원등이 등용되리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제 11代국회의 後半2년을 맞고 12代총선을 의식하지 않을수없는 시점에서 民韓黨은 지금 한창 겪고있는 자기갈등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것이다。

동시에 가장 큰 難題인 異質的요소의 同質化를 통한 共感帶의 형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民韓黨도 이번전당대회를 그후에있을 黨체제改編은 사실상 85년12代總選을 향한 기반구축에 초점을두어야하는만큼 얼마만큼 국민에게 새롭고 신선하고기대를 주는자세를 보여주느냐를 가장先決해야할 숙제로 꼽아야할 것같다。

따라서 이번전당대회를 계기로 民韓黨이 自省과철저한 자기개혁과 刷新으로 어느정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관심이모아지고있다。【李成俊기자】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내고향통닭집

☎537-0432　매니저 배

오뎅백반	$2.95
칼국수	$2.95
우동	$2.95
짜장면	$2.95
김밥	$2.50
통만두	$2.95
곰탕	$2.95
비빔밥	$2.95
불백	$4.95
갈비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두국	$2.95
떡국	$2.95
떡만두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닭	$4.95
1/2닭	$2.95

658½ BLOOR ST. W.

美 海外주둔軍 3만 增員

작년 한해 蘇의 팽창주의對處위해

유럽·極東·太平洋 중점

【홍콩=聯】레이건美행정부는 지난82년 한해동안 세계 전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처키위해 陸·海·空3軍과 해병대를 포함, 해외주둔 미군병력을 2만8천8백50명 증원시켜 지난연말현재 총병력이 54만3천4백명으로 늘어났다고 홍콩의 大公報가 6일 보도했다.

大公報에 따르면 지난1년간 해외주둔 미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유럽으로서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주둔중인 미군에 총증원병력의 3분지 2에 해당하는 1만8천명을 증파, 나토주둔미군규모는 35만5천6백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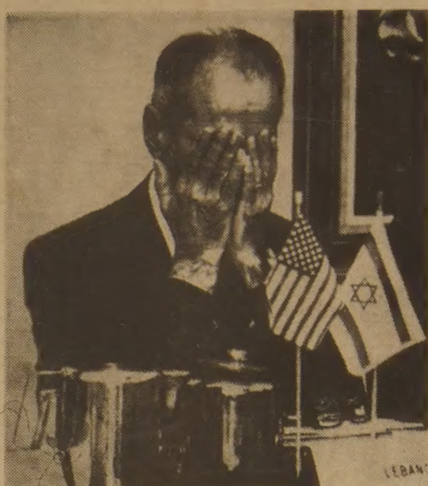
이 신문은 이어 이같은 사실이야말로 역시 유럽이 美·蘇의 주요 대결지역임을 입증해준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극동및 태평양지역에 주둔중인 미군총병력도 지난1년동안 1만2천1백명이 늘어나 14만7천5백명이 됐다고 大公報는 전했다.

또 미국은 中東지역에서도 레바논에 해병대1천2백명, 그리고 시나이반도에 육군8백명을 각기 파견, 이지역의 평화유지에 공헌하고 있으며 특히 産油지역에 언제라도파견 가능한 20만명의 신속배치군을 조직했다고 大公報는 지적했다.

한편 美國의 「뒷뜰」이라 할수있는 南美의경우 증원병력은 1백50명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이지역의 親美세력강화에 계속 역점을 두고 있으며 쿠바및 소련의 지원억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大公報는 말했다.

현재 南美에 총1만5천5백명, 中東에 2만4천8백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덧붙인 大公報는 미국이 이밖에도 캐나다에 6백명, 기타지역에 2천9백명, 그리고 海上부대로 1만4천8백명을 각기 주둔시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協商테이블서 휴식취하는 레바논代表 레바논外軍철군협상을 벌이고있는美·레바논·이스라엘등 3國대표가 의제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있는 가운데 알트완·파타 레바논대표가 6일 4차회의에 앞서 두손으로얼굴을 감싼채 잠시 휴식을 취하고있다. 【키리아트시모나 (이스라엘) UPI=聯合】

議題싸고 계속맞서

美·이·레바논4차會談 10일 다시 만나기로

【베이루트SPA=聯】이스라엘北部의 정착촌 키리아트·시모나에서 6일 재개된 레바논과 이스라엘및 美國협상대표단간의 제4차회담이 의제문제를 해결하지못한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끝났다.

회담후 발표된 성명은 협상대표단들이 각기 自國정부에 의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전달할것이며 10일상오 베이루트南쪽의 할데회담에서 다시만나 5차회담을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레바논대표단의 소식통들은 레바논측이 회담에서 이스라엘軍의 레바논철수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한다고거듭 주장했다고 전했다.

국영레바논방송은 레바논측이 또한 이스라엘측의 거부에도 불구, 美國측의 타협안을 접수시킬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팔랑헤黨방송은 모리스·드레이퍼 美中東특사가회담중 새로운 의제를 제안했으나 레바논과 이스라엘양측은 수락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않았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의제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회담이 끝난후 레바논의 안트완·파탈, 이스라엘의 다비드·김체, 美國의 드레이퍼특사등 3국협상단 대표들은 자문을 위해 각각 自國정부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政府전복 企圖말라

스페인王 軍에警告

【마드리드=聯】환·카를로스 스페인국왕은 6일 군부우익세력이 펠리페·곤잘레스수상의 사회주의정부전복을 기도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카를로스 국왕은 군사행진과 각종행사가 거행되는 3백년전통의 「군사성탄절」기념식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헌정을 뒤엎거나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를 전복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 군부우익세력이 정부전복을 기도하지 말도록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중거리 核미사일 減縮제의

「바」機構 美「제로·옵션」代案으로

【프라하(체코슬로바키아)AP·로이터=聯】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동맹국들은 6일 核전쟁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경고하고 레이건美대통령이 제안한 「제로·옵션」(零의 선택)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대륙에서 중거리核미사일의 신속한 감축을 단행하자고 제의했다.

바르샤바조약기구 수뇌들은 4、5양일간에 걸쳐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제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쌍방이 서로 核무기 또는 재래식무기들에의한 선제공격을 감행치않을것을 골자로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오룡호 拿捕는 國際法위반'

外務部, 석방안되면 국제機構提訴

외무부는 7일 지난해11월 3일 맬다이브 경비정이 우리어선 오룡37호를 나포한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우리선원들의 석방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경우 국제사법 재판소등 국제기구에 提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오룡37호는 세이셸群島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국도중 맬다이브근해 국제해로(경제수역)를 통과하던중 경비정에 나포됐으며 領海를 침범했거나 密漁한사실은 없다』고말하고 『맬다이브가 經濟水域을 통과할때 사전통보를 받도록 국내법에 규정한 것은 2백해리 경제水域의 자유통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선원에 대한 體刑도 국제법상 위법이기때문에 선원의 석방과 선박을 되돌려줄것을 제3국을 통해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南北대치현실을 惡用, 외교적 또는 경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하는 국가들에대해서는 기존 외교관계를 포함, 모든관계를 재검토하는 강경한 대응책을 펼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軍 민간인大虐殺

산·마르코스省서 지난 2~3週동안 수천명

워싱턴 南美문제사무소서 밝혀

【워싱턴=聯】과테말라軍은 지난2~3주동안 멕시코와의 서쪽 국경부근인 산·마르코스省에서 과테말라 민간인 수천명을 학살했다고 人權기관의 통합체인 워싱턴 南美문제사무소(WOLA)가 6일 밝혔다.

엠네스티·인터내셔널, 어메리컨·워치, 미국교회협의회(NCC), 서바이벌·인터내셔널등으로 구성된 WOLA는 지난해 11월하순과 12월사이 이지역의 수개 촌락과 도시들에대해 공습과 박격포 포격이 퍼부어졌다고 말하고 지난해 12월14일엔 찔카·산타·세실리아에 포격이 퍼부어져 무수한 난민들이 인접 멕시코의 타파출라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미테랑外交는 極東에 눈을 떴다

—安炳璨駐佛특파원, 즈와요教授와 送年 인터뷰

日과는 政治的 동반관계 추구

東歐와 南北韓 交叉승인 實現性 없어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정부는 역대 다른 어느 행정부보다 한반도등 아시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선진기술의 판매시장 개척을 위한 측면으로도 이해할수 있으나, 다른 면으로는 북한이나 베트남을 고립으로부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무대에 끌어넘으로써 긴장완화를 도모한다는 사회당외교노선의 실현으로 볼수도있다. 지난 8월 세송외상의 한국방문으로 이런 프랑스정부의 정책이 부각됐었으나 이들이 모색하고 있는 교차승인문제는 당장은 현실성이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테랑 사회당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외교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對한반도외교는 어떤 성격의것인가. 본사 安炳璨駐佛특파원은 프랑스의 저명한 극동문제 전문가 프랑스와·즈와요교수(44)와의대담을 통해 미테랑의 아시아외교1년을 점검해보았다.【편집자註】

—安炳璨특파원=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외교에 변화가 있는가.

▲즈와요교수=사회당정부가 집권한 이래 프랑스정부가 극동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을 향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펴려하고 있음은 부인할수 없다. 미테랑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뿐 아니라 세송, 조베르및 다른 각료들이 아시아지역 사방을 누볐다. 그럴 필요가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레지스·드브레 대통령보좌관까지 여행을 했었다.

프랑스 사회당정부는 극동국가와 인도를 아시아의 이해 중심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꾀한다. 그렇지만 사회당의 프랑스를 담방하는데 아시아지도자들은 덜 조급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사회당 정부는 극동과 아시아에 접근하는가.

▲사회당정부의 새로운 접근의 하나는 일본에대한 것이다. 프랑스는 경제적시각 뿐아니라 정치적 눈길을 일본에 보내고있다. 미테랑의 도오쿄연설을 읽어보면 알지만 일본과 무역、재정관계뿐아니라 정치적 동반관계를 희망하는듯 언급했다. 이는 새 아이디어는 아니라도 다소는 새로운 경향이다.

프랑스새정부는 지스카르외교가 별로 손을 대지않았던 아시아지역 대소국가와 관계를 갖고자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때문에 우선 일본과의 대화에 활력을 불어 넣어보려고 82년 4월에 미테랑의 일본특별여행이 있었으며 이와 똑같은 자세로 대인도관계도 시동을 건것이다. 프랑스—인도관계역시 정치관계에 역점을 둔것이어서 세송외상의방문과 미테랑자신의 최근방문이있었다.

프랑스 새정권은 동남아시아와 한국에대해서도 큰외교활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테랑 대통령이 장차 한국、인도네시아、중공을 여행하리라는 얘기는 그반영이다.

—미테랑정부는 어째서 일본과의 정치관계강화를 모색하는가.

▲아이디어의 처음은 경제분야에서 출발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프랑스는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큰문제에 봉착해있으며 이문제는 경제적수준에서 해결하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미테랑 정부는 정치관계를 개선하고싶어한다. 일본을 이해시켜 정치동반자의수준에서 경제협상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것이 프랑스의 의중이다.

—대중공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미테랑이전의 중공관계는 일정한 수준은 유지했으나 과히 좋지않은 상태였고 아직도 인도차이나 문제의·이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스카르·데스탱정권때는 소련의 압력으로 중공에 무기를 판매할것을 거부했기때문에 이론의여지없이 북경당국을 실망시켰다.

또하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것은 베트남에관한 것이다.

프랑스의 관점은 베트남을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이 상책이라는데있었음으로 하노이정부에 약간의 차관을 제공했다. 반대로 중공은 베트남을아시아에서의 소련패권주의의 일부로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에 서있었다.

그때문에 중공은 베트남을 고립시키는것을 원했고 프랑스는그런 고립정책이 베트남을 더욱 소련에 경도시키므로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했으며、이것이 냉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테랑대통령도 집권한 직후에는 사회당의 요란한 인권주의와 프랑스공산당의 장애로 북경과거리를 두고있었다. 북경당국은 벨프로와사건(註 북경당국이 프랑스주재 북경대사관 공보관인 벨프로와의 중국인 약혼녀를 반정부음모혐의로 체포한 사건)을 이용했다.

81년11월 조베르가 북경에가서 벨프로와사건을 매듭지음으로써 프랑스사회당은 인권문제에 관한 그들의 나이브한 자세에서 첫번째 수확을 거둔것으로 자위했다.

프랑스는 현실적 감각이있는 중공통 직업외교관 말론씨를 새로 북경주재대사로 임명하고 교역과 무기판매를 재개함으로써 대중공관계를 다소 진전시켰다.

—미테랑정부의 외교정책에 인권문제는 어느정도의 비중을 갖는가. 미테랑대통령 개인은 최근 루마니아 망명작가 비르질·타나스나 쿠바반체제시인 바야다레스구출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인권문제는 프랑스 사회당이 중시하는 바였다. 프랑스사회당과 프랑스공산당간에도 문제를 일으킨 토픽의 하나였다. 사회당은 공산당에대해 폴란드나 소련에서의 인권문제를 못마땅하게 거론했다.

사회당정부 초기에 미테랑대통령은 사회주의국가 뿐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인권을 방어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은 외교문제에서도 큰부분을 차지한 요소였다. 몇달후 인권의 주장이 외교정책에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이 분명해 지면서 81년말부터 그강조의 정도는 줄어들었다. 인권에 기초한 외교의 어려움은 몇년전 미국의 카터대통령이 경험했는데 최근 프랑스도 같은 경험을 하고있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사회당정권의 바닥에 깔려 있는점은 알수있다.

—프랑스와·즈와요교수 약력—

▲파리제3대학 동양문명언어연구원 졸업
▲시앙스·폴리티크 (파리정치대학) 정치학박사
▲파리제3대학및 시앙스·포 교수
▲리뷰·몽드·아시아티크誌 편집인
▲저서 : 「중국과 인도차이나 최초의 충돌—1954년제네바에서」 (79년)
「극동의 새로운 문제」 (80)
「중공의 외교정책」 (83)

◇지난81년 5월 東西의 다리역할을 자처하고 출범한 프랑스의 社會黨정부는 아시아지역 긴장완화의 초점이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다고 보고있다。

—미테랑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미테랑이 집권하기까지 20년이 걸렸음을 상기해야한다. 드골정권이 극동에서 성취한 외교정책의 하나는 64년의 중공승인이었다. 나의 첫인상은 미테랑대통령이 극동에서 무엇인가하려고 찾고있다는 것이다. 모든 극동국가와 관계를갖기를 바라는데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문제가 어려움을 주고있다.

프랑스가 한국에취한 정치외교는 82년8월말 세송외상의 서울방문으로 부각되었다. 사회당정부는 한때 동구국가 가운데서 한국을승인한 대상을찾아 교차승인과 한반도의 데탕트를유도하고싶어했다. 생각은 훌륭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결점이 드러났다.

미테랑대통령이 라오스에 새로 대사를 보낸것은 공산당의 압력에의한 것인데 북한에 대해서도 공산당으로부터의 압력이 있다. 그러나 당장의변화는 없을것이며 83년봄의 지방선거이후에도 프랑스의 대한반도외교는 현상을 유지할것같다. 미테랑대통령의 서울방문도 이루어 질것이다.

프랑스새정부는 처음에는 국제문제는 물론 더구나 극동문제에는 관심을 갖지않았다가 외교활동이 프랑스에 중요함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당초 사회당은 물론 공산당은 원자로나 무기판매문제에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가졌고 외교는 전통적으로 기업가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외무역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아시아 극동각국과 무역협상을 추구하게되었다. 미테랑정부는 극동과 아시아에서 무엇인가 하고싶어 하지만 아직 새로운 외교정책의 윤곽이 잡히지는 않은것으로 본다.

【파리=安炳璨특파원】

記者의 눈

한국의 對外信用

국제금융시장이 중병을 앓고있다. 원리금상환을연기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나라가 속출하고 빚얻어서빚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이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있는 선진국과국제금융기관도 조건이 나쁜 단기금융만을 제공하고 그나마 신규차관을 가능한한 억제하고있다.

경제개발을 위해 막대한 외자를 필요로하는 우리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닐수없다. 외국금융기관의 추정에의하면 한국의 외채는 세계에서 4번째로많은 3백6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는 60억달러의 외채를들여왔고 올해에도 61억달러의 외자를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75억달러의 외자를 들여오려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어려운 여건때문에 외자도입이 순조롭지 못했을뿐아니라 수입수요의 둔화와 국내금리인하에 따라 외자도입기피로 6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돈을 빌리는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용이 밑천이다. 국내에서야 다른 변수가 작용할수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용이 없이는 한푼의 돈도 꾸어올수가 없다.

다행히 한국은 외채의 액수는 많으나 신용도는 나쁘지않다는 평가이다. 대체로 돈을 빌려줄 나라의 신용도는 정치적 환경, 자원, 성장의 잠재력, 외채의 액수, 수출, 기업의 경영능력등을 따져서 평가한다. 한국의경우 南北분단의 정치적 상황과 자원빈국이라는 사실이 불리한 여건이지만 수출과 경제성장 잠재력은 상위권에 든다.

더구나 외국인들은 한국의 외자활용제도에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있다. 외자를 도입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외자도입심의위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차관기업의 내자조달 능력을 검토한다음에 허가를하고있다. 또 금융기관의 외자차입도 일단 韓銀에 예치한 다음에 사용한다. 이같은 합리적인 외자의 활용방안이 외국인에게 한국의 신용도를 높게평가하게하고있다.

신용도는 본래 상대적인 것이다. 외채의 상환능력이 없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한국과 같은 나라의 신용이 높아진다는역설이 성립할수있다. 돈이 남아 돌아가는나라가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나라가 있다. 남아도는나라는 어차피 모자란나라에 빌려주어야한다. 이때문에 일부 국제금융기관에서는 南美국가들에 대해서는 차관을 줄이고 한국등 극동국가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릴 방침임을 밝히고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쓸수있는 나라로 보고있지는 않는것같다. 외채의 절대액이 너무 많기때문이다. 빚 무서운줄알고 저축증대로 외자의존도를 줄이는것이 신용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申相韻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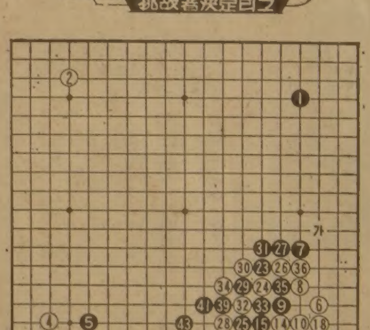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1譜 1~44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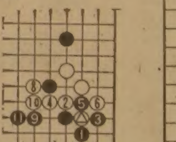
白(6段) 張秀英〈1勝〉
黑(7段) 河燦錫〈1敗〉

仁川태생으로 올해 29살인 張6단은 근면성실한 「대기만성형」이란 평을받아오더니 과연80년도 제12期名人戰에 처녀 출전하면서부터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해 5승1패, 지난해는 4승2패로 徐奉洙7단의 뒤를 바짝쫓으며 상위서열을 마크했으며 특히 지난번 最高位戰에서는 徐7단을 꺾고 曺薰鉉9단에 대한 도전권을 따냈다.

이 도전대국은 비록 3대0으로 패퇴했으나 이로써 徐7단, 姜勳4단 그리고 徐能旭6단등과 더불어 曺王國타도 「別軍의 騎將」으로 부각된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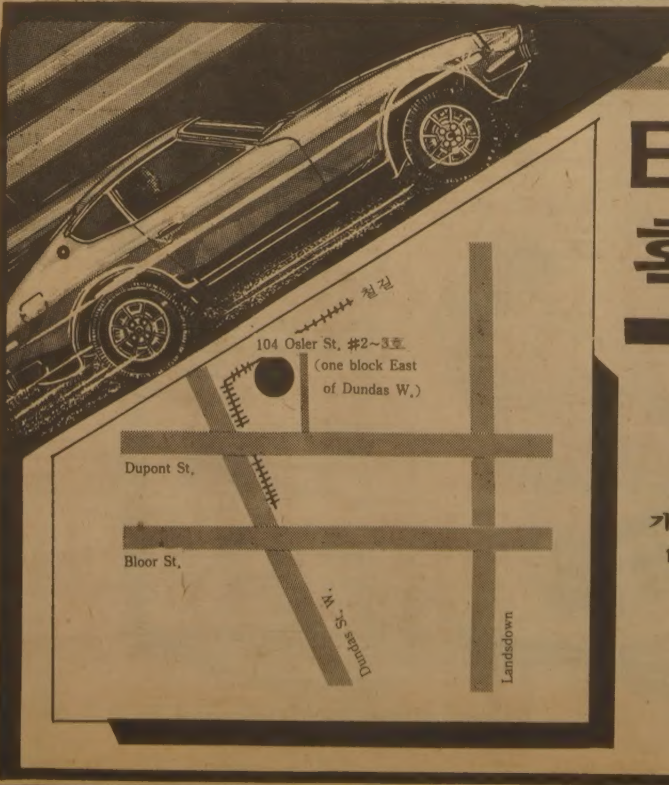
大型定石의 手順



그런뜻에서 기대를 크게 걸며 우선 이바둑을 지켜본다.

黑5로 「가」자리에 두는 中共式은 白「나」의 굳힘이 안성마춤이며 黑9로 15자리에 달려 白17, 黑42면 하변 黑진의 짜임새가 마땅치않다.

河7단은 포석부터 시간을 충분히 들인다. 그리고 보는바와같이 白44까지 대형정석을 택하여 대국 바둑판 4분의1이 꽉 차게 되었다. 이 정석에서 주의할점은 白10, 12의 수순이다. 선틀리 12쪽에 먼저 뛰어붙이면 참고도처럼 黑11까지 (도중黑7은 △에이음) 되어 黑이 유리하다. 또 白44로 「다」는 黑44치중으로 白이 망한다. 37…29. 【一凡】



E.J. AUTO BODY
확장이전

새해에도 교민여러분께 만복이 같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Lisbon 오토바디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금번 제가 새로 확장이전해서 E.J. Auto Body shop를 open하게 되었읍니다.
과거와 같이 배전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영 두 올림.

개업리셉션
1월15일(토)
오후 7 시

□ 수리후 일체 책임보증(1년간 보증수리서 제공)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제공.
□ 수리중 New Car를 무료대여.

104 Osler St. #2—3호

(B)766—3122
(R)439—6548

◇출국을 위한 비자인터뷰순서를 기다리며 밤을 새는 美대사관 앞의 행렬. 서울에서만 볼수있는 진풍경이다. 이들 중에는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신종업자들까지도 섞여있다.

서울만의 珍風景 美대사관앞「밤샘」

돈받고 대신 줄서기도

面接 먼저하려고…대사관측"그럴理由없다"

요즘도 미국대사관 앞에는 미국입국을 위한 면접순서를 기다리며 밤을새우는 장사진이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다。

일가족이 총동원되어 인근에 여관을잡고 침식、용변을 교대로 해가며 추위에 웅크리고 밤을새우는 사람들도있고、이같은 수고를 대신해주고 2만~5만원씩돈을 받는 신종「기다리기심부름꾼」까지 등장하고있다。

밤을샐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야단들일까。

전쟁이나 긴급사태가 없는한 세계어느곳에서도 볼수없는 이런 진풍경이 유독 서울에서만 일어나는이유는 무얼까。

미대사관측은『그럴필요가 전혀없는데 납득이가지않는다』는 태도고 당사자들은『빨리 면접을하려면 그길이 상책이다』고 주장했다。

미대사관 영사관도『상오8시30분부터 10시30분 사이에 오는사람들에대해서는 모두 당일중으로 면접을해주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일찍면접을받기위해 밤을새우고 있는것으로안다』고 밝히고『밤샘은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대사관 건물밖에서 밤을새우거나「밤샘꾼」을 고용하는사람들은 그들나름대로의 이유를 주장하고있다。

8시30분부터 10시30분사이에 도착하면 당일중으로면접을할수있기는하지만 오전중에 면접을끝내고 돌아가기위해서 새벽4~5시께부터 줄을서기시작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전날밤부터 내보내 자리를지키게하여 결국대사관앞에는 밤새는장사진이 계속벌어지게된다는것이다。

또일단 비자인터뷰에서 통과하지못해 재면접에 해당하는 출국희망자들에게는 사정이 더욱급박하다는것。대사관측은 재면접자에대해서는 대상자를 하루30~50명으로 제한、매일아침 8시30분에 선착순으로 선발、나머지 사람들을 되돌려보내고 있기때문이다。

재면접희망자들은 일단 아침의 선착순 선발에서 제외되면 다음날 또다시 줄을서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아예 전날밤부터 대사관앞에나와 밤을 새거나 고용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물론 미대사관측은『처음오는 일반면접자들의 순번을 존중해야 하기때문에 일단인터뷰에서 탈락된 재면접자의 대상수를 제한하지 않을수없다』고 해명하고있다。

재면접희망자들은 상오8시께부터 줄을서기 시작하여 가족·친지들끼리 2~3시간씩교대로 다음날 면접접수시간인 상오8시30분까지 기다린다。자정께까지는 그리 붐비지않아 30~40명 내외선인데 다음날 상오4시께면 대시를 타고 몰려든 일반면접자들과 합쳐서 대열은 2백명정도로 늘어나게된다。

이들은 늦게나온 사람들의 새치기를 막기위해 스스로번호표를 만들어 나누어 갖기도 한다。

동생대신 나왔다는 朴斗鎬씨(38·상업·서울冠岳區奉天洞81)는『이틀째줄을서고 있다』며『상오8시30분부터 줄을서서 가족4명과 번갈아 교대하고있다』며 추위에 떨고있었다。

또 숙부의면접순서를 기다리며 줄을섰다는 金鉉洙군(21·K대2년)은『2일째 줄을서서 면접을 하게 하였다』고 말했다。

줄을서서 밤을새워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대리로 줄을서 수수료를 받는사람들마저 생겨났다。

이들은 주로 40대가량의여자들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고용학생도 있다。상오8시께 당일면접 인원이 접수를하려 들어가기시작하면 미대사관영사과정문입구에는 대리로줄서는 사람이 7~8명이나 되는데、이들의 수수료는 1건당 2만~5만원가량이고 사람이 붐빌때 수수료는 더욱비싸진다。

이들이 하는일은 상오8시부터 다음날상오8시까지 24시간 대리로줄을서서 접수의 우선권을 얻어주는일이다。

일부용역회사에 의뢰된 사람의줄을 서주기도하고 미리소식을들은 면접자들과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기도한다。

지난해10월중순부터 대리로 줄을서고 수수료를받았다는 金모씨(43·여·서울冠岳區奉天2洞)는『최근들어 1일 2~3명씩 의뢰를받고있어 손이 달릴지경』이라며『용역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거래를한다』고 말했다。

H용역회사의 경우 의뢰비는 3만5천원인데 평소5~6건이 밀려있을 정도다。

용역회사에서는 의뢰인의 의뢰가 있으면 대리인을 소개해주고 다음날 면접을 시작할때 의뢰인과 대리인이 교대한다。

또 여행사에서도 고객의 의뢰를받아 소년직원들에게 대리로 줄을서게하는데、여행사의 경우 수수료는 20만원이고 지난해 10월까지는 대사관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전문적으로 대신 줄서기사업을 벌인적도 있었다。

미국대사관 앞의 이같은출국장사진에 대해 한면접희망자는『일반면접자의 경우는 모두 당일에 처리되고있는데도 가족이나 고용된사람을대신보내 밤샘을 시키는것은지나친 경쟁심리이며 대사관앞에서 밤새워 줄을서있는 모습은 아무래도 보기 흉한일』이라고말했다。

한편 또다른 면접희망자는『재면접자의경우는 대사관측에서 당일의 탈락자라하더라도 다음날면접의 순번을정해주고 돌려보내면 지나친밤샘 경쟁은 사라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朴榮基기자】

防犯대원들이 개도둑

담넘다들켜…1명잡아

어제새벽 서울서

7일새벽1시30분께 서울道峰區孔陵1洞644의41 金양호씨(70)집에 泰陵경찰서 孔2파출소소속 방범대원 4명이 담을넘어들어가 싯가 1백만원짜리 세인트 버나드종개1마리(생후4개월)를 훔쳐 달아나다가 주인金씨의 아들 재순씨(27·회사원)에게 들켜 이가운데 1명은 붙잡히고 나머지3명은 달아났다。

金씨에의하면 이날 감기가 심해 잠을설치고있던중 뜰에서 불빛이 창문에비치면서 개가 요란하게짖어 잠시후 마당으로 나와보니 개는없어지고 개줄만 펜치로 잘려져 있었다는것。

金씨는 밖으로 뛰어나와집 옆골목길에서 방범대원 4명이 개를안고 달아나는 것을 발견、『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뒤쫓자 방범대원들이 개를 그대로 놓아둔채 달아났다는것。

金씨는 1백여m를 추격、이중1명을 격투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방범대원들은 泰陵경찰서 孔2파출소 소속으로 이날야간순찰근무중 인접 孔1파출소관할구역으로 넘어가 범행을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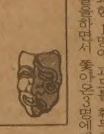
도둑잡은 아마추어 大學生 방범대원 沈德基군

"젊은이의 가능성 키워주는 社會를…"

「5일밤 9시30분。복면을한 괴한5명의 그림자가 서울江東區千戶3洞52의23 金모씨집의 담을 넘고있었다。손에는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있었다。이들은 순식간에 담을 넘어 어둠속으로 사라졌다。그런지 얼마되지않아 집안에서『강도야』하는 째지는듯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어 조금전에 담을 넘어간 괴한5명이 허겁지겁 대문으로 뛰쳐나와 달아났다。그순간 金씨집 대문앞에 서있던 3명의 사나이가 이들을 쫓기시작했다。

복면 괴한 1명이 과도를 휘두르고 발길질을하면서 쫓아온3명에게



달려들었다。2명중 한사람이 과도를 휘두르는 사나이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과도를 떨어뜨리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5분후 복면괴한은 두사나이앞에 고개를 떨구고 서있었고 나머지를 쫓아간 동료1명도 괴한 1명의 목덜미를 채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다。

복면괴한 2명을 잡은 3명은 7일 李海鎭서울시경국장으로부터 표창장과 부상을 받은 대학생방범대원 沈德基군(25·사진·建國大경영학과 2년)과 柳松男(36)金鎭國씨(29)등 3명。

『지금도 얼떨떨할 뿐이에요。『강도야』하는 소리를 들은 순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沈군은 이날밤 서울에서 처음근무를 시작한 대학생방범대원 7백13명중의 한사람으로 千戶3洞에배치됐다。근무를 시작한지 3시간후 沈군은 柳씨등과 함께 한조가 돼 金씨집대문에 달려있는 순찰함의 카드를 체크하고 있었다。그순간『강도야』하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던 것。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沈군은 등록금의 일부라도 자신이 벌자는 생각에서 방범대원을 지원했다。매일밤 5시간씩 20여㎞를 걸으며 순찰하는 일이 쉽지않겠지만 경찰업무의 어려움을 알고 사회를 경험해보자는 뜻이 곁들여 있었다。

『아마추어 방범대원이 강도를잡았다 하니까 뉴스가 되는 모양이군요。멋도모르고 지나갔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등에 땀이 흽니다』

남들의 지나친 관심이 조금은 마땅치 않다는 표정이다。도시인들의 깊이 없는 흥흥감 보다는 젊은이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며 1백78㎝의 훤칠한 키에 청바지차림의 방범대원은 믿음직하게 방범대원모자와 곤봉을 집어들었다。【韓基奉기자】

地方학생에 高得點많다

3백점이상 前年比 10배나 늘어

이번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에서 지방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높아져 고득점자층에서 서울보다 지방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가 전국 평균 증가폭 7·7배보다 적은 4~5배에 그친 반면 지방은 거의 10~15배까지 크게 늘어나 학력고사에서 지방세의 진출이 점차 두드러져 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의 경우 학교간의 성적격차는 여전해 이른바 사립명문고라는 몇몇학교가 고득점대의 분포를 석권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방별로보면 가장 증가폭이 두드러진 지역은 강원도로 3백점이상 고득점자가 지난해의 13명에서 1백67명으로 13배나 늘어났고 2백70점이상도 9백78명으로 작년보다 5·6배나 됐다。

또 제주도는 3백점이상 12명에서 1백11명으로 거의 10배가량 전북은 32명에서 3백9명으로 9·7배、大邱는 7백29명으로 8·5배로 모두 전국평균증가폭을 웃돌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경우 사립명문이라는 D고등학교는 3백점이상고득점자가 지난해의 11명에서 56명으로늘어 약5배에、S고등학교는 81명으로 작년 23명에서 4배도 되지않는수치에 그쳤다。

서울에서 가장많은 증가폭을 보인 고교는 새롭게 신명문으로 등장한 K고교도 작년의 7명에서 7배이상늘어난 5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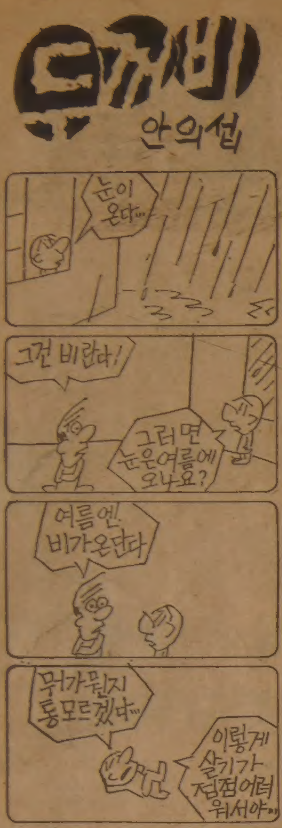
입시전문가들은 이같이 지방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진것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고 평이하게 출제돼 공부를 비교적 많이하는 서울지역수험생이 실력발휘를 제대로하지 못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진것이라고 풀이하고 전반적인 실력의 향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입시전문가들은 또 이같은 추세에따라 종전 서울대지방간의 고득점대분포 5·5대 4·5가 이번 학력고사에서는 거꾸로4·5대 5·5가 될것이라고 풀이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명문대학의 경쟁률은 이들 지방학생들의 향방에따라 크게좌우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入學특혜 點數고쳐

【釜山】8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고득점자가 예상외로많자 부산시내 일부전기대학들이 우수한학생을 확보키위해 명시해놓은 신입생입학요강을 뜯어고치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부산교육대학은 7일 문교부의 학력고사성적분포가 발표되기전 인쇄해놓은 신입생입학요강중 특전에서 학력고사 260점이상으로 입학한 학생에대해 기성회비등 학비감면혜택을 준다고 명시했다가 전국에서 260점이상의 고득점자가 5만3천3백91명이나 쏟아지자 이를 20점높인 280점이상자로 고쳤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한국船員 25명에 實刑

맬다이브、경제水域 침범혐의로

◇선장張大實씨

우리나라 참치잡이 원양어선 오룡37호(4백톤급·선장 張大實·33)가 작년11월3일 인도양을 지나다 인도남쪽섬나라 맬다이브당국에의해 경제수역침범혐의로 나포됐으며 지난12월16일 현지에서재판에 회부돼 2백50만달러의 벌금과함께 선원25명 전원이 5~10월씩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오룡37호 소속회사인 思潮산업(서울西大門區忠正路2街157·사장 朱鎭旴)이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외무부와 수산청은 오룡37호의 나포사건진상을 조사、오룡37호는 나포직전 국제해양법에따라 맬다이브영해를 통과하면서 무해통행허가를 신청했으나 맬다이브당국이 무선국을 지정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나포했음을 밝혀내고 현지와 가까운 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오룡호의 선체와 선원들의 석방교섭을 벌이고있으며 빠른시일안에 이들이 풀려날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속회사인 思潮산업측도 지난 연말께 사장 朱鎭旴씨와전무朴秉和씨(56)가현지를 오가며 선원들의석방교섭을 벌이고 있다고말했다。

현지를 다녀온 思潮산업직원에 의하면 선원들은 모두 건강하며 현지에서 식량과 공식이 안되어 회사측이 제공해주고 있다는것。

한편 오룡호의 나포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자 부산시中區南浦洞 思潮산업 부산사무소에는 7일아침부터 선원가족 20여명이 찾아와 석방교섭을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오룡37호 기관장 정홍진씨(42)의 아내 李貞姬씨(39)는『남편이 외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은 한달전 회사측으로부터 통보로 곧 돌아올줄 알았는데 회사측의 무성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은것이 아니냐』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나포선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洪大實(선장·33·전남 麗水市菊洞416의3) ▲유군천(25) ▲張종상(항해사·22) ▲金동선(20) ▲金만규(35) ▲崔청호(28) ▲유길봉(26) ▲李순태(25) ▲李경하(30) ▲金종희(22) ▲金석근(22) ▲朴영무(32) ▲조철제(24) ▲車상명(18) ▲정봉진(42) ▲유광종(25) ▲고광호(24) ▲김현수(24) ▲崔채선(23) ▲정학수(32) ▲車안수(21) ▲李술이(18) ▲白창열(27) ▲위재량(35)

◇나포된 제37오룡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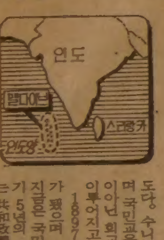
印度洋 千2백여 산호섬國

人口11만、수니派회교 지배

맬다이브 共和國은 스리랑카 남서쪽 6백70㎞ 떨어진 인도양상에 약 1천2백여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다。

주요산업은 어업이며 수출품의 태반이 해산물이다。참치잡이가 어업의 주종을 이루고있다。

면적은 2백98㎢ 인구 11만여명을 가진 작은 나라로 곳 최대도시인 말레市가 수도다。



수니派의 회교국가이며 국민교육도 일반교육기관이아닌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97년 영국의 식민지가 됐으며 1965년 독립、직접국민투표에 의해 임기 5년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共和政體의 국가다。【慶】

入養딸 운다고 목졸라죽여

"강도짓"養母가 虛僞 신고

아파트強盜사건

【釜山】부산南區 우성아파트 대낮살인강도사건은 강도를 당했다는 정양자여인(29)이 입양시켜 키우고있던 생후8개월된 딸 金보선양이 심하게운다고 목졸라 살해한뒤 강도살인으로 허위신고한것으로 밝혀졌다。

부산南部경찰서는 7일 정여인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정여인이 金양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넥타이 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정여인이 강도에 털렸다는 3개귀금속중 금반지는 당초없었고 금팔찌는 동생에게 주었으며 3부다이아반지는 자기집 목욕탕 하수구에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증거물수색에 나섰다。

정여인은 경찰에서 자녀가 없어 사생아를 입적시켜키워왔으나 최근들어 이 딸이 너무우는등 미워져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정여인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경찰은 범행의 직접적인 물증이 되는 넥타이만을 발견했을뿐 완벽한물증수사가 펼쳐지지않아 이날 상오11시현재 공식발표를 않고 있다。【彰】

"상반기중에 改善策마련"

金保社、木浦서 2종醫保에언급

【木浦】金正禮보사부장관은 7일하오『木浦를 비롯한 전국 6개지역에서 2종 의료보험을 실시한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하고『특히 보험료징수및 처방전 발행이 저조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키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의사들이 처방전을 좀더많이 발행할수있도록 의·약인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행정력을 집중하는한편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강구할방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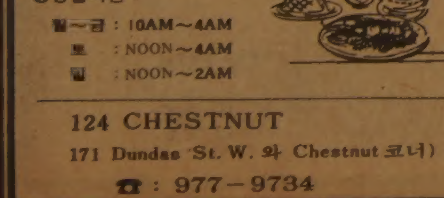
金장관은『그러나 이같은 제반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지역에서의 처방전발행이 계속저조할경우 한층 강화된의약분업을 실시하기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수밖에없다』고 경고했다。【彰】

李鍾淑여사

李儁열사의 외동딸로 납북된 사학자 柳子厚씨의 부인 李鍾淑여사(駐캐나다대사 李揆現씨 장모)가 6일상오11시 노환으로 별세했다。향년 88세。

발인 10일오전9시 국립묘원 영안실 장지 경기楊州郡永福山 천주교묘지 ☎(930)0867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8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제64회 동계체전 아이스하키 중등부결단식공고

금번 본 체육회는 제64회 동계체전에 아이스하키 중등부를 파견키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여러선배님들을 모시고 결단식을 갖고저 하오니 공사바쁘시겠사오나 부디 참석하셔서 출전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소 : 한인회관
일시 : 1983년1월15일(토) 오후7시

체전참가선수단
단장 이 호 석
재캐나다체육회
회장 이 병 권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내품에 83년을…

"멕시코서 眞價보이겠다"

88五輪땐 꼭 國家대표되어…

축구 李基根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서도 골을 넣고 싶어요』

작년만 방콕서 열렸던 제23회 아시아 청소년축구대회 결선 4강전에서 서제골 2개와 결승골 1개를 터뜨려 한국이 패권을 차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했던 李基根(17·우신고3년)은 청소년대표 18명중 金判根(16·금호고) 다음으로 어린 선수지만 새해에 갖는 포부와 각오는 어른스럽다.

『基根이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읍니다. 국가대표로 성장할수있는 재목입니다. 경기를할때보면 마치 찬수가 있는곳에 基根이 있고 基根이 있는곳에 찬스가 나는것 같습니다』 제21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때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3連覇를이끌어온 朴鍾煥감독(서울시청코치)의 아낌없는 찬사다.

서울신답국교 4년때 축구를 시작한 李基根의 선수생활은 9년. 漢陽中을 거쳐 宇信高에 진학했다. 고교1년때까지는 돋보이지 않으나 2년전 沈建澤코치가 부임하면서 한알의 진주로 변했다. 1백m 주력이 육상선수에 버금가는 12초F에다가 과감한 돌파력, 볼을 다루는 감각이 뛰어나고 다른 선수들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것이 沈코치의 눈에 잡혀 李基根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가 전개됐다.

81년5월 청소년대표선수로 발탁된 해트트릭을 기록,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李基根은 이해 9월 싱가포르서 열린 라이온즈컵 대회에 출전, 4게임서 3골, 12월 홍콩로시대항 국제대회서는 5게임중 5골, 또 지난해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청소년축구 동부지역 예선전서는 6게임을 통해 6골을 획득, 골게터로 부상했다.

그러나 李基根이 올해부터 해결해야할 큰과제는 체력보강이다. 한국선수들의 표준체격에비하면 몸이약하고 키가작다. 작년여름 싱가포르 청소년축구예선전을 마치고 귀국, 국내경기를 하다 왼쪽 쇄골을 크게다치는 상처를입기도했던 李基根은 좀더 튼튼한 체력을가꾸고 키가 4cm정도만 더자라면 축구선수의 체격으로서는 나무랄때가없다.

또한가지 李基根의 흠는을 을끄는 습관인데 빠른패스와 볼을 리턴한뒤 상대수비가비어있는틈을 재빨리파고 들어가는 몸놀림, 논스톱슛등을 좀더익힌다면 대성할수있을 것으로 沈코치는 내다보고있다.

『基根이는 코치가 2명입니다. 다른선수들에게는 찾아보기힘든 개인코치가 있지요』

◇李基根 신상명세

본적	서울城東區杏堂洞168의3
현주소	〃 巨餘洞 한성연립주택
생년월일	1965년 7월17일
가족관계	李世永씨 (父)의 3남중 장남
신장	171cm
체중	66kg
학력	한양중졸 현재 우신고교 3년재학
취미	음악감상

體力·技가꿔 가는곳마다 千金의 "숫"

「축구의꿈」놓친 아버지는 제2의코치… 올해도 勝利의 선물을

지난57년께 충남江景商高축구선수로 활약하다 팀해체로 일류축구선수의 꿈을 이루지못한 아버지 李世永씨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꿈을 가꿔가고 있다는것. 李씨는 基根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매일새벽 5시에 함께일어나 달리기등 기본기를 중점으로 면밀을 가꿔왔다. 아들이 출전하는 국내게임을 모두찾아다니며 경기중에 미흡했던점들을 일일이 기억했다가 바로잡았는것 외국의 일류선수들이 뛰는 경기필름도 구해 아들에게 보여주며 나름대로 개인지도를 해왔다. 李씨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숙련공들과 해오던 건축사업까지 지난해 팔아치워버렸다.

『새해에는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지요. 基根이는 아버지와함께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2남1녀(基根·宣根(15·漢陽中3년))를 모두 축구선수로 키우고있는 李씨는 새해들어 아들의 착실한 전진을 다짐한다.

88년서울올림픽때는 꼭 국가대표로 뛰고싶다는 基根의 포부는 車範根 許丁茂처럼 외국프로팀에 진출하는것. 올해 漢陽大에 진학하는 李基根은 지난4일부터 漢陽大서 실시한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10일부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대비, 청소년대표팀 동계강화훈련에 합류하게 된다.

작년의 아시안게임서 대표팀의 치욕적인 예선탈락으로 먹구름에 덮혔던 한국축구에 희망찬 햇살을 다시 비춰준 청소년대표팀에 [illegible] 큰기대를 걸고 있다. 李基根의 다리에 거는 기대는 더크다.

【安春燦 기자】

개운찮은 "蹴協회장 出馬"

"추대"싸움 호지부지… "眞意다" "아니다"뒷말많아

막대한 돈 投資하고도 현執行部 또한번 망신

◇崔淳永씨

◇金宇中씨

大宇그룹 金宇中회장의 축구협회장 출마설은 동면기에 젖어든 국내스포츠계에 비상한 관심을 끈 화제였으나 6일 金회장측에서 『출마의 뜻을 표명한적이없다』고 공식 부인함으로써 싱겁게 일단락 되었다.

金회장측에서는 金회장이 해외출장등 바쁜 사업일때문에 축구협회를 감당할수 없을뿐 아니라 전혀 회장출마의사를 갖고 있지않았다고밝혔으나 축구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연말을 전후하여 大宇축구팀 張雲洙감독의 움직임, 서울시축구협회장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과열부드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응수했다.

金회장의 출마설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것은 신정연휴 기간중 張감독이 보도진에게 金회장의 출마 뜻을 밝힌후부터였는데 현축구협회장인 崔淳永씨와 출마설에 오른 金회장은 공교롭게도 京畿高 동문인데다가 재계의 실력자들이어서 1월15일 열릴 축구협회 대의원총회서 과연 표대결이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갈것인가 하는점에대해 큰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서울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金宇中회장 계열의 趙重植씨가 崔淳永회장 계열의 孫昌厚씨를 물리치고 새회장이 되면서 양측의 감정이 날카로와졌다는 후문도 들렸다.

崔·金 표대결이 보도되자 體育部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양측이 갈려 표대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보도진에게 金회장출마설을 말했던 張雲洙감독은 7일 『나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자세한 것은 蔚錫비단장에게 물어달라』며 아리송한 해명을 했다.

아뭏든 이번 사건으로 崔淳永집행부는 또 한번 망신을 당한 셈이다. 崔淳永 회장은 취임후 막대한 돈을 축구발전에 투자했으나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람을 쓰지못해 협회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고 특히 79년 무리를 무릅쓰고 프로팀 할렐루야를 창단한 과정에서 중진 축구인들과 반목을 빚었던것이 실책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華】

大宇팀 張雲洙감독 "出馬뜻"발설이 불똥

작년 서울市 협회장 선거때부터 異常氣流

◇나브라틸로바 猛威여전

지난해 15개대회를 휩쓸어 랭킹1위에 올랐던 나브라틸로바가 83년첫경기인 버지니아·슬림스대회서도 레이·룰프슨을 2－0으로 격파, 맹위를 떨치고 있다. 【AP】

한국、中共과 3組

LA축구 亞洲예선 11월까지 방콕서

84년LA올림픽축구아시아지역예선이 한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참가한가운데 오는 11월말까지 방콕에서 열린다. 5개조로 나누어 펼쳐지는 이경기서 한국은 중공 홍콩 태국과 함께 3조에 편성됐다.

축구협회에 의하면 이대회 경기방식은 5개조가운데 각조 상위 2팀씩 (10개팀)을 뽑은후 다시 2개조로 나눠 상위2개팀씩을 가리고 4개팀이 다시 경기를 펼쳐 올림픽에 출전할 3개팀을 최종 선발한다. 최종예선전은 84년3월말에 끝난다.

◇조편성

▲1조=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시리아 ▲2조=바레인 이라크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3조=중공 홍콩 한국 태국 ▲4조=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5조=자유중국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아

吳完建씨 FIFA아마委員 被選돼

◇吳完建씨

국제축구연맹(FIFA)은 축구협회 前부회장 吳完建씨(한국유리전무)를 FIFA아마추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7일 축구협회에 공식통보해왔다. FIFA 아마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아시아지역에서는 吳씨와 中共의 의천·형·다씨등 2명이 위원으로 피선됐다.

배구代表선수 3元化

趙회장 城南엔 準專用경기장

배구 준전용경기장이 연내에 경기도 성남시에생긴다.

대한배구협회 趙錫來회장은 7일 대표선수 보강및 3원화육성, 시설지원방안등 대표팀 전력강화방안을 밝혔다.

趙회장에 의하면 오는 5월 착공, 10월 완공예정으로 城南市 二梅洞에 건평5백87평, 공사비 6억8천여만원 규모의 韓國女子배구팀 체육관을 건립, 이곳을 여자대표선수 전용체육관으로 아울러 사용키로했다.

이 체육관에는 1층에 국제규격의 코트와 비디오실, 휴게실을 갖추고 2층에 35명이 합숙할수있는 시설을갖추게 된다. 또한 선수들의 체력강화를 위해 49평의 체력실을 설치하며 美國 플로리다 노틸러스 스포츠메디컬인더스트리社로부터 점프머신등 배구선수전용 최신기자재 4점도 아울러 구비한다.

이 체육관은 또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키위해 컬러TV중계가 가능한 1천5백룩스의 조명시설, 전자식 스코어보드와 국제경기를 소화할수있는 타라프렉스코트를 깔게된다.

趙錫來회장은 준전용 경기장외에도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대표선수단을 15명으로 늘리고 코칭스태프도 장기훈련을 쌓을수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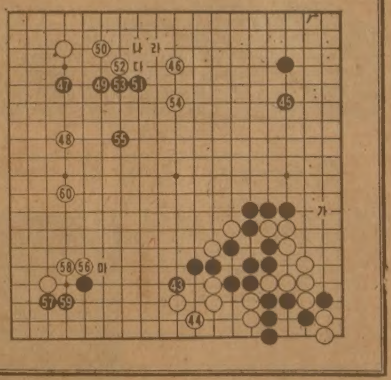
또한 대표팀의 저변을 현행 1군에서 3군까지 늘리며 세계선수권및 유니버시아드대회등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선수에게는 등급의 보상제를채택한다는것.

배구협회는 앞으로 해외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해외파견 지도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현지 활동상황을 수집키로 했다.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2譜 44～60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張秀英 (1勝)
黑 (7段) 河燦錫 (1敗)



河7단은 오랜 슬럼프에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10년전 王位, 國手, 棋王등 타이틀을 차례로 쟁취하며 한창 기세를 올리던 시절을 새삼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까와하는 팬들도 적지않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14살때부터 일본기원서 잔뼈가 굵어온 그가 아직 34살 한창때 나이에 이대로 주저앉을리는 없을것이니 「왕년의」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진다.

한때 河7단은 와서 李相徹 4단에게 첫판을 패한것이 부담이되었는지 본보에 들어서자 본의아닌 의문수를 두어버렸다. 우하의 대형정석을 白44

白、能率的 布陣

까지 응수시킨것은 그렇다하고 다음 黑45가 문제라는 중론이다. 우변은 「가」의곳에 퍼둔이 열려있으므로 45로는 좌상귀를 47에 걸치든지 그냥 46자리에 선착해야 옳다는 것이다.

따라서 白46이 절호의곳으로 되었다. 白48이면 黑51까지는 이정도의 곳인데 여기서 張6단은 대담한작전을 시도한다. 白52로 평범하게 「나」에 뛰어두면 黑이 좌하귀에 선편할까 걸린것이다. 白52, 54는 장차 黑이 「단」에서 「란」로 젖혀 차단하는 수가 있어 염려하지만 그때는 白도 한바탕싸우겠다는 배짱이다.

白56이하 60까지 張6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대만족인데, 河7단 쪽에서 「그렇다면 黑57로는 「마」에 젖히고 60자리를 먼저 차지해야 되었다」고 두번째 작전실패를 지적받게 되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2>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⑱

수지는 수철이가 사는 아파트단지까지 와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 친절하게 자주 안다니 까닭도 있었지만 아파트를 멀리서 멀다하고 올저다녀서 호수 호수를 헷갈리기가 십상이었다.

처음 듣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지만 한수철씨댁이 틀림없다고했고 친절하게 동호수를 가르쳐줬다. 손님이 여럿 와 있는지 웅성웅성소와 들뜬 분위기가 느껴졌다. 손님들이 와있다고 생각했으나 수지는 개의치않고 친정집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 고모』

늙은 가정부의 어깨너머로 수지의 모습을 발견한 영란이 호들갑을 떨며 놀랐다. 그러나 반가와서 그러는것같진 않았다. 난처한얼굴을 띠고 수지를 손님들로부터 가리면서 구석으로 끌고가려고 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왜 언니? 친정에 오면 좀 안돼우?』

수지는 영란이 왜 그렇게 난처해하는지 몰라서 가볍게 뿌리치며 말했다.

『너 그룹이 뭐냐?』

자마노처럼 빛깔고운 액체가든 유리컵을든수철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에게선 아주 향기로운 술냄새가 났다.

그제서야 수지는 수철이부부가 왜 그녀를 포위하다시피했는지 알만했다. 요며칠사이에 그녀의 몸은 많이 아니었다. 손질안한 머리는 봉두난발이었고 화장은 해본적이 없었고 옷소매엔 때가꾀죄죄했고 손톱마저 더러웠다. 아마 지린내 거지냄새도 몸에 배어있으리라.

『왜 내꼴이 어때서요?』

수지는 둘러선 그들을 밀치고 손님들사이로 걸어들어갔다.

늘 한가운데는 흰 테이블보를씌운 큰식탁이 놓여있고 그 위엔 먹어다면목수있는갖좋 음식이 보기좋게 차려져 있었다. 여기저기 음료수와 유리컵이 놓인 작은탁자가 있고 한국석의 길다란 탁자위에선 우아하게 생긴 말쑥이는 은빛 큰 그릇속에서 녀비아니 갈비 닭고기니 하는 각종 육류가 감미로운 냄새를 풍기며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실내는 눈부시게 밝았다. 여나문쌍이 넘어뵈는 부부가 자유로운 모습으로 흩어져 고운 음료를 들며 고상한 담소를 즐기는 모습이 발끔 막이 올른 무대의 장면처럼 영문 모르게 휘황했다.

영란의 넓게 파인 목둘레엔 반짝이는 돌이 박힌 네크레이스가 찬요하면서도 살풍한 축녀미인의 목을 더할 나위없이 우아하게 받쳐주고 있었고 얇고도 선연한 불꽃빛 입술은 난처함과 호기심으로 야릇하게 벌어져 있었다.

『고모,도대체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우선 마실것 좀 드려요?』

『네, 맥주나 한컵』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밤 이 시각에…』

영란이 맥주컵을 건네주면서 다시 난처한듯이 수철이 눈치를 보았다. 수철이 느닷없이 호탕하게 웃었다.

『당신 개 꼴 보면 모르겠어. 난 당바 알겠는데…』

수철은 퀴즈문제를 내놓은것처럼 잠깐 뜸을 들이고나서 좌중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제 하나밖에없는 누이동생이 얼마나 고결한 취미를 갖고있나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마 다투어 이 거룩한 선녀의 때묻은 손에 입맞추려드실겁니다. 안그러나, 수지야? 넌 자선사업에도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하는 진짜 자선가잖아 않았는데 늘은 왜 이렇게 티를내냐』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틀.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윈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톨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주방헬퍼 구함(무경험자 관계없음)
직접 내방원함. 25 The West Mall
(Sherway Garden Mall) Golden Bird B.B.Q. Chicken

Indoor골프장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함.(학생환영)
전화: 298-3584, 638-4658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2살, 5살
전화 : 447-1460

나염프린팅, Golden Craft
나염프린팅 배합사, 배색사 구함. 우대하겠음.
전화: (B)247-8870, (R)242-4319 Mr. 김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밤일 하실분 구함.(키프링 & 렉스데일)
전화 : 743-3822

도넛숍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 하실분 구함.
전화: 690-3920 (B), 491-8734(R) Mr. 김

영주권 가지신 분으로 입주하여 애기봐주시며
가족같이 지내실분
전화 : 271-1482(낮), 274-5685(저녁)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669-6438

경험있는 키친 헬퍼 및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251-1908, 466-4578 (After 5p.m.)

경험 많은 여자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오후5시~11시까지 하실분(토·일 포함)
전화 : 625-1620

카운터 헬퍼구함. 영어 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바쁜 점심시간을 잘해내야 함.
전화 : 449-2012(7-10 pm) Mr./Mrs. Goomar

식당(32좌석) 누구든지 맡아서 운영하실분.
렌트: 월 $350. ◉527 Evans Ave.
전화: 823-5135(R) 691-6768(B) Mr. 김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유경험 Cashi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주방장과 요리사 구함.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 원함.
전화로 예약하세요. 755-3010 or 923-6026
Kyoto Japanese Restaurant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아침8시부터 8시간 6일 근무.
전화: 923-3939

초저녁 사무실청소 하실분.
전화: 368-8421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4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습니다.
전화 : 653-3105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스키협회(박경태)	491-1931, 598-3732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9-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등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션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30,000+스탁 렌트: $750
Bloor West 전화: 535-6838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5,500. 리스 : 4년+5년 옵션
◉주매상 : $3,500. 리스 : 4년+5년 옵션
A.E. LePage Real Estate
전화 : 741-9170 Mrs. 우

밴쿠버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0,000+스탁
토론토전화 : 282-8066(Mr. 리)

가게달린 건물 매매
◉2층에 살림집(1200 sq/ft)
◉가게(1200 sq/ft) ◉지하실(1200 sq/ft)
◉가게리스는 금년 9월에 끝남.
◉현주매상 $4,000이나 더 Sale을 많이 올릴 가능성있는 가게임. 전화: 243-0233 Mr. 김

◉ZET Spray $150. ◉Pop 머신 $200.
◉Teyler Slush 머신 $6,000.(6개월 사용했음)
전화 : 282-3553(낮), 284-9325(저녁)

- Choice 레스토랑 비지네스와 부동산 매매
- Deli 커피숍. 주매상 : $3,000. 동쪽에 있는 바쁜지역.
  쉽게 운영할 수 있음. 아스킹 : $72,500
- 상업용 2층 빌딩.
  1층에 레스토랑 있고, 2층엔 2 Bed Rm.아파트
  미래 년 렌트인캄 $13,800. 아스킹 : $134,500
  전화 : 421-2214 Miss Cheng.
  New Bliss Real Estate Co-operation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리스: 5년+5년. 아스킹: $10,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531-1005(Ralf)

Davenport & Christie. 3베드룸 타운하우스.
화장실2개. 센트럴·에어콘디션. 개스히팅.
Leo Bradshaw, John Molloy 481-3443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넛숍
매상으로써 캐나다에서 최고수준의 주 $10,000
아스킹: $350,000. 년순수입: $150,000.
◉드라이크리닝 디폿(Depot)
한달순수입: $1,500보장. 혼자서 6일 오픈. 아스킹: $23,000
◉후라이드 치킨
주매상: $7,500 아스킹: 195,000 년순수입: 약 $100,000
◉미스터 씨업머린
주매상: $7,000 아스킹: 185,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225-1204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 Bed Room 세놓습니다.
(더퍼린 써브웨이 부근)
전화 : 536-8262

1 Bed Rm. 방세 놓습니다. 부엌포함.
월/$200.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Mr. 김) (오후 1시~밤 10시사이 전화요)

방 세놓음. 조용한 가정. 댄포스와 돈랜드지하철서 도보로
5분거리. 교통편리. 화장실·취사시설 공유. 1주당 $35.00
전화 : (R)466-2455, (B)823-9040 ext. 2165 Mrs. 조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육)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포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